

2020 국별 진출전략

영국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2019년 10월 31일 EU 탈퇴를 앞둔 영국	4
나. 브렉시트 이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비 지속	5
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예산 적자로 스마트 의료 시장 부각	7
라. 자동차 산업 침체와 미래형 자동차의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	7
마.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8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9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9
2. 시장 분석	16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6
나. 교역	17
다. 투자	19
라. 프로젝트·공공조달	22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4
가. 교역	24
나. 투자	25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6
III. 진출전략	27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7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8
3. 한-영국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4
4. 진출 시 유의사항	38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40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42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43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3
부 록	
對영국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44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2020년 영국 경제는 전년 대비 성장을 '하락' 전망

- 2019년 10월 31일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영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1.0%로 전망, 2019년 전망치 1.2% 대비 0.2%p 하락 예상
 - 주요인은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고조되는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투자 부진 지속과 가계의 가처분 소득 하락에 따른 민간소비증가율 둔화임
 - * 민간소비증가율 전망치(OECD, 2019년 9월) : 1.6%(2018) → 3.6%(2019) → 0.9%(2020)
- 미·중 무역 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안정성과 브렉시트 리스크의 장기화는 영국 경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IMF는 영국의 2023년 중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브렉시트 이후 예상되는 무역장벽과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를 반영하여 1.6%로 추산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65.0	65.4	65.8	66.7	67.1	67.5	67.9
명목 GDP	십억 달러	3,038	2,898	2,669	2,642	2,829	2,800	2,911
1인당 명목GDP	달러	40,617	41,869	42,853	44,446	45,046	46,189	47,355
실질성장률	%	2.9	2.3	1.8	1.8	1.4	1.2	1.0
실업률	%	6.2	5.4	4.9	4.4	4.1	3.9	4.1
소비자물가상승률	%	1.5	0.4	1.0	2.6	2.3	1.9	2.0
재정수지(GDP대비)	%	-5.3	-4.2	-2.9	-1.8	-1.5	-1.8	-2.3
총수출	십억 달러	482.3	438.1	404.1	436.6	468.1	476.2	504.4
(對韓 수출)	십억 달러	6.6	6.9	5.8	7.4	7.7	N/A	N/A
총수입	십억 달러	683.1	617.9	583.3	613.0	652.0	661.0	685.7
(對韓 수입)	십억 달러	6.0	6.3	6.1	5.4	5.3	N/A	N/A
무역수지	십억 달러	-200.8	-179.8	-179.2	-176.4	-183.9	-184.8	-181.3
경상수지	십억 달러	-149.4	-142.2	-140.3	-88.0	-108.8	-116.1	-33.0
연평균 환율	US\$/파운드	1.65	1.53	1.35	1.29	1.34	1.29	1.31
해외직접투자	십억 달러	-151	-67	-23	118	50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십억 달러	25	39	196	101	64	N/A	N/A

주 : 2019년, 2020년은 전망치

자료 : Economic Intelligent Unit, OECD(2019년 9월)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요약

-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장기화로 영국 경제성장률 및 전망치 모두 하락
- 영국 정부, 브렉시트 이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 지속
- 영국 의료 예산적자 심화에 따른 스마트 의료 시장의 부상
- 미래형 자동차 산업 분야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따른 스타트업 진출기회 확대
- 발달된 금융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가. 2019년 10월 31일 EU 탈퇴를 앞둔 영국



브렉시트 협상 주요 쟁점 및 현재(2019년 9월) 상황

- 당초 2019년 3월 29일로 예정되었던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 정부와 의회의 탈퇴협정 합의안 도출 실패 이후 EU 특별정상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31일로 연기된 상황이며, 본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9년 9월 기준, 유럽연합탈퇴법 발효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 브렉시트 향방이 주목되는 상황임
 - 메이 총리 사임 이후 7월 24일 브렉시트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 정부가 출범해 재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10월 31일 반드시 EU를 탈퇴한다는 입장을 천명함
 - 8월 하순, 하원의 노딜 브렉시트 저지 움직임에 대항해 존슨 총리가 요청한 의회 정회를 여왕이 승인, 9월 중순부터 10월 14일까지 의회가 정회됨
 - 9월 초, 하원의 유럽연합탈퇴법* 표결 통과 및 조기 총선안 부결 처리에 이어 유럽연합탈퇴법의 상원 통과 및 여왕 재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서 존슨 총리의 일방적 노딜 브렉시트 추진에 급제동이 걸린 상황
 - * 주요 내용 :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에 합의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의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며, 두 가지 모두 실패 시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함
 - 9월 하순 현재, 영국과 EU는 새로운 합의안 마련을 추진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며, 영국 대법원의 “의회 정회조치는 위법”이라는 판결로 존슨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진 상태임



노딜 브렉시트 우려 속에 경제성장률 및 전망치 모두 하락

- 영국 경제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 속에 2019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서비스 산업을 제외하고, 건설업, 제조업, 농축산업 등 기타 산업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이중 제조업*은 2.3% 감소함
 - * 시장 분석 전문기관 IHS Markit이 분석한 7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0으로, 2013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50.0은 경기 확장 및 위축을 가르는 기준점)
- 영국산업연맹(CBI)은 노딜 시 영국 경제 27개 분야(국경/세관, 화학, 생명과학, 에너지 산업, 이민, 데이터의 이동 등) 모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영란은행(영국 중앙은행)은 2019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 8월 물가 상승률 보고서에서 영란은행은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가 2020년까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9년, 2020년 경제성장률은 직전 보고서(5월)에서 전망한 1.5%, 1.6%보다 줄어든 1.3%로 하향 조정함
- 정부는 8월 기준, 총 63억 파운드(9조 2,570억 원)를 배정해 노딜 브렉시트의 혼란에 대비하기로 함
 - 국경수비대 추가인력 500명 채용, 항만 인근 교통 인프라 확충, 정부 헬프라인 보강 등 국경 및 세관 분야에 약 3억 4천만 파운드 배정
 - 공급 우려가 예상되는 필수 의료기기·의약품의 분야에 4억 3천만 파운드, 기업 피해 대비용 1억 파운드 등 배정

나. 브렉시트 이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비 지속

브렉시트 이후 무역 활성화와 대외 교역관계 연속성 확보로 新무역영토 확장 추진

- 영국 정부는 자유무역항이 무역에 드는 비용과 절차, 서류작업을 없애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 유치를 돕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8월에 10개의 자유무역항 도입 계획을 발표함
-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이 제3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브렉시트 이후에도 적용하여 대외 교역 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고 하며, 브렉시트를 동력 삼아 EU와 무역협정 미체결국과도 교역 관계의 확장을 추진하고자 함
 - 영국은 2019년 9월 현재, Chile(1월 30일), Eastern and Southern Africa(1월 31일), The Faroe Islands(2월 1일), Switzerland(2월 11일), Palestinian Authority(2월 18일), Israel(2월 18일), Liechtenstein(2월 28일), Pacific Islands(3월 14일), Caribbean countries(3월 22일), Norway and Iceland(4월 2일), Andean countries(5월 15일), Central America(7월 18일), South Korea(8월 21일) 등 38개 국가 또는 지역과 13개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며,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란드), 모잠비크 등 6개의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음. 또 중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과 무역작업반을 구성해 협상을 진행 중임

미래 산업 선도하기 위한 산업전략과 '분야별 합의(Sector Deals)' 발표 및 추진

- 영국 정부는 2017년 11월 산업 및 기술,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가 생산력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담은 산업전략을 발표함
 - 국가 생산성을 지탱하는 다섯 가지 토대로 혁신경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프라 업그레이드, 친기업 환경 조성 및 지역 간 균형된 발전을 언급
-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도전과제로는 아래 네 가지 분야를 설정
 -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 경제 : 글로벌 경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해당 기술의 사용을 장려
 - 청정 성장 : 영국이 탄소 배출량 감소 등 청정 성장 분야에 있어 이미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모색
 - 미래형 이동수단 :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 사용을 장려하고, 커넥티드·자율주행차량의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형 운송수단 산업을 선도
 - 고령 사회 : 고령 인구를 위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해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웨어러블 기기 등 혁신 헬스케어 기술의 활용을 장려
- 이어 영국 정부는 2018년에 항공우주, 인공지능(AI), 자동차, 건설, 창조 산업, 생명과학, 원자력, 해상풍력, 철도, 관광 등 10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과 합의를 거친 '분야별 합의(Sector Deals)'를 발표하고, 이들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함

브렉소더스(Brexodus) 방지를 위한 법인세의 인하로 투자유치 확대

-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 상실 전망에 따라 영국 내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EU 단일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EU 역내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현 19%인 법인세를 당초 계획대로 2020년까지 18%까지 인하하여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 내 최저 수준의 법인세 보유국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 2019년 기준, 주요국 법인세 현황 : 아일랜드(12.5%), 영국(19%), 이탈리아(24%), 독일(30%), 프랑스(31%)
- 다국적 회계법인 KPMG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법인세 평균은 23.79%로 금융위기 이후 영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등 주요 OECD 국가들이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영국은 2008년 30% 대비 11%p 대폭 인하한 경우로 추가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기업의 탈영국 움직임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주요국 법인세 인하현황(2008~2019년) : 영국(30%→19%), 일본(40.69→30.62), 캐나다(33.5%→26.5%)

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예산 적자로 스마트 의료 시장 부각

의료 예산 적자 심화에 따른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부상

- 영국은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보건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가 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를 비롯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갈수록 NHS의 예산 적자 심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2014~2015년 8억 2,200만 파운드였던 적자 규모가 2015~2016년 세 배에 달하는 24억 5,000만 파운드에 육박해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함. 이후 2016~2017년 7억 7,000만 파운드 적자를, 2017~2018년에는 9억 6,000만 파운드 적자를 기록함
- NHS는 예산 적자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스마트 헬스케어 부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NHS는 AI(인공지능) 분야를 결합한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기술의 대중화를 통해 영국 의료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를 통한 환자의 진료예약 및 원격진료 서비스가 실시되는 등 AI 스타트업들과 협력해 보건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유망분야로 떠오르고 있음

라. 자동차 산업 침체와 미래형 자동차의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

-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2018년 기준, 802억 파운드의 매출과 202억 파운드의 부가가치를 창출 하면서 영국 경제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였으며, R&D 분야 투자액은 매년 약 36억 5,000만 파운드 규모이며, 자동차 업계 내 고용은 총 86만 6,000명 정도
 - 영국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2018년 기준 총 152만대로, 전년 대비 9.1% 감소했는데, 이는 국내 및 글로벌 경기 하강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주요 자동차 생산기업들은 공장폐쇄, 신규 모델 출시 계획을 축소하여 부진한 영업실적으로 감원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영국 자동차 산업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 감소 외에 배기가스 규제 강화 및 디젤엔진에 대한 불신, 전기차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 공유경제의 확산 등의 영향이 큼
 - 이런 환경변화 속에 재규어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등 자동차 메이커는 전통적인 공급 체인(Supply Chain) 방식이 아닌 허브-스포크* 방식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발전을 모색 하고 있음
- * 기존의 공급사슬(완성차-1차 Tier-2차 Tier) 대신 완성차 업체가 허브가 되어 필요한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 등을 완성차 업체가 직접 접촉하는 방식
- 동시에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마.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세계 3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2019년 창업가 비자 제도 개편

- 런던은 2017년 글로벌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비교에서 실리콘밸리, 뉴욕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유럽 내에서는 1위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런던은 글로벌 금융 산업의 중심지로, VC·크라우드펀딩·엔젤투자가 등이 몰려있어 테크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피칭과 IPO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및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음
 - 2018년 세계금융센터지수(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에서 런던은 794로 1위를 차지했으며, 뉴욕(793), 홍콩(781), 싱가포르(765), 도쿄(949), 상하이(741) 순임
 - * 세계금융센터지수(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 금융전문가 설문조사와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도시별 금융서비스 매력도 측정지수로, 글로벌 금융 컨설팅그룹인 Z/Yen이 실시
- 런던시 공식 홍보 기관인 런던 앤 파트너스(London&Partners)에 따르면, 2018년 런던 테크(tech) 분야에 대한 VC 투자는 18억 파운드로, 2위인 베를린(9억 3,600파운드), 3위인 파리(7억 9,700파운드) 보다 크게 앞서 런던이 기술, 혁신 및 창의성의 글로벌 허브로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영국 정부는 비유럽경제지역(Non EEA)의 유능한 해외 스타트업 및 혁신가를 영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2019년 3월 새로운 비자 제도를 도입
 - 기존의 Tier 1 Exceptional Talent 비자 및 Tier 1 Entrepreneur 비자를 폐지하고, 혁신가 비자(Innovator Visa) 및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 신설
 - * 혁신가 비자(Innovator visa) : 영국에서 사업체 운영 시 필요한 비자로, 5만 파운드의 투자자금 및 보증기관의 사업 승인 필요
 -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 : 영국에서 창업 시 필요한 비자로, 보증기관의 사업 아이디어 승인 필요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요약

- (정치)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로 보통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로 내각 구성
- (경제) 영국은 GDP 기준 유럽 내 독일에 이은 두 번째 경제 대국
- (산업) 금융 포함 서비스 중심, 그 외 의료, IT, 자동차, 에너지 등이 주요 분야
- (정책) 국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전략, 혁신 성장을 위한 지원제도 등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가. 정치 환경

정치 환경 전반

-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로 복수 정당이 총선에 참가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집권당이 되며, 집권당 총수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게 됨 영국의 내각제도는 규칙과 관행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효력을 지니지는 않으며, 의회의 정부 불신임권, 정부의 의회 해산권 역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즉, 영국 의원내각제의 발전은 대통령제와 다르게 관습헌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영국은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련들의 법들과 규정들을 갖고 있으며, 주권은 국왕과 상·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에 나뉘어져 있으며, 국왕은 상징적·의전적 기능을 갖고, 총리가 권력 구조에 있어서 내각·하원·정당의 중심적,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핵심적 지위에 있는 것이 특징임
- 현재 영국의 정당은 보수당, 노동당, 스코틀랜드국민당, 자유민주당, 민주연합당, 웨일즈민족당, 녹색당 등이 다수가 있지만, 현 집권당인 보수당과 제2의 다수당인 노동당이 실질 정권을 두고 대립하는 형태임
-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1) 정부 정책의 감독과 통제, 2) 주요 정책 논제의 검토 및 새로운 법률 입법, 3) 조세제도와 조세법을 제정, 4) 지방재정 제도의 변경 및 개편 등의 역할을 하며, 법안 발의는 하원에서 하고, 상원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원은 사실상 집권 다수당의 당수인 총리가 임명하기 때문에, 상하원 모두 여당의 지배가 확고한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상호 견제 기능은 많이 축소된 편임

최근 정치 주요 이슈

- 영국의 EU탈퇴일(2019년 10월 31일)이 임박한 가운데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법 이 9월에 의회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됨에 따라 현재 영국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브렉시트 추가 협상이 진행 중임
 - 유럽연합탈퇴법에 따르면,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에 합의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의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두 가지 모두 실패할 경우 영국 총리가 EU집행위원회에 2020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의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되어 있어 향후 브렉시트 방향에 따른 미래 교역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9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 유럽연대기금과 유럽 세계화 조정기금을 활용해 7억 8천만 유로(약 1조 370억 원)의 긴급 자금계획을 발표, 노딜에 따른 EU 회원국의 혼란에 대비하도록 함
 - * 유럽연대기금은 원래 자연재해를 입은 회원국을, 유럽 세계화 조정기금은 세계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EU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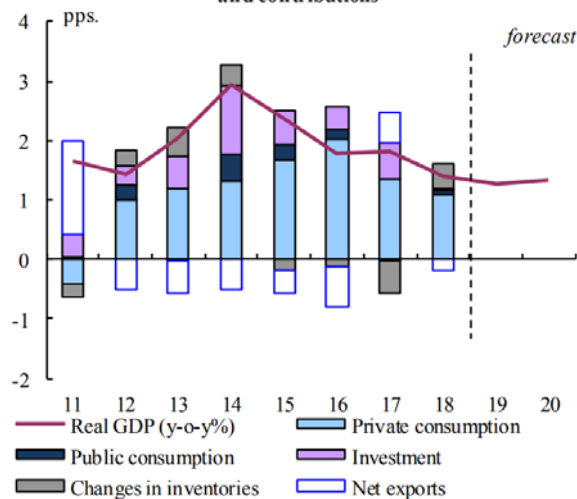
나. 경제 환경

영국 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영국은 2018년 GDP 기준 유럽 내 독일 다음의 경제 대국으로, 영국 경제는 민간 소비증가를 바탕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 3.1%(EU 집행위 기준)을 기록하는 등 금융위기 이후 유럽 지역 경제회복을 견인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2016년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도 당초 글로벌 경제기관들이 성장률의 대폭 하락을 전망했던 것과 달리 2016년과 2017년에 1.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해왔음
- 그러나 노딜 브렉시트의 현실화 가능성으로 인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하면서 2018년에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브렉시트 강경파인 존슨 총리의 취임 이후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고조로 2분기 경제성장률이 2012년 이후 처음 -0.2%를 기록하는 등 지속되는 브렉시트 리스크 요인으로 2020년 영국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영국 경제성장을 추이 및 전망

Graph 2.28: The United Kingdom - Real GDP growth and contributions



자료 : EU 집행위(2019년 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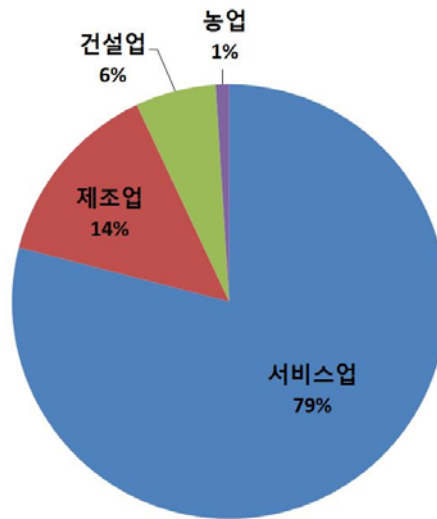
- (금리)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금융위기 이후 2009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하여 경기 부양 효과를 노려왔으나, 2016년 8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로 인해 촉발된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저치인 0.25%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함
 -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어지는 데 반해,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하면서 2017년 0.5%, 2018년 8월 0.75%로 인상했으며, 2019년 8월 정책 회의에서 브렉시트의 순조로운 이행과 글로벌 성장의 다소 회복을 감안해 만장일치로 0.75%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고용) EU 집행위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영국의 실업률은 3.8%로, 체코(1.9%), 독일(3.1%), 네덜란드(3.4%), 몰타(3.4%), 헝가리(3.4%)를 제외하고는 유럽 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의 최저임금은 2019년 기준 8.21파운드임
 - * 영국 최저임금 추이 : (2016)7.2파운드 → (2017)7.5파운드 → (2018)7.83파운드 → (2019)8.21파운드
- (대외교역)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8년 영국의 교역량은 국내총생산 대비 61.3%로 대외의존형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은 지난 20년 넘게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약 1,839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 영국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 비해 EU 역내 교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미국, 중국을 제외하면, 상위 10대 수출입국가가 모두 유럽 국가임
- (외국인 투자) fDi Market 조사에 따르면, 영국은 2018년 프로젝트 수 기준 유럽 내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 1위 국가로, 2018년 기준 1,278개 외국인 직접투자 프로젝트를 유치, 영국 다음으로는 프랑스(588개), 독일(568개), 스페인(551개), 폴란드(323개) 순임

다. 산업 환경

영국의 주요 산업 동향

- (산업별 비중) 2017년 기준(2019년 확인 가능 최신자료)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은 전체 GDP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임. 그 외 제조업(14%), 건설업(6%), 농업을 포함한 1차 산업(1%)의 순으로 산업별 비중이 분포되어 있음
- 특히 영국은 세계 최대 금융 중심지로 꼽히는 런던의 금융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의료바이어 국민건강서비스(NHS)가 영국의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의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음

2017년 영국의 산업별 GDP 비중(2019년 확인 가능 최신자료)



자료 : parliament.uk 자료 무역관 종합(2019년 9월)

- (금융) 세계 금융 중심지, 핀테크(FinTech)
 -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은 영국 GDP의 약 79%로, 특히 금융 산업은 영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IT형 금융생태계인 핀테크(FinTech)를 영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채택해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등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음
 - 2016년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핀테크 분야가 금융혁신을 이끌면서 신기술 투자 및 신사업 모델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2019년 영국의 금융당국(FCA) 주도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29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금융혁신 네트워크(GFIN)가 창설, 혁신기업 간의 소통 및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신기술 실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

- (의료) 재정압박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의료 시장
 - 영국 통계청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2017년도 헬스케어 지출은 1,974억 파운드를 기록했으며, GDP의 9.6%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3.3% 증가한 금액이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4% 이상 증가한 수치임
 -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의료제품 수요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향후 만성질환 및 노화관련 치료, 약물 복용 증가로 의료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 속에 NHS의 재정압박도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됨
- (IT) 소비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영국 IT 산업
 - 영국 IT 산업의 2018년 총매출은 약 96억 파운드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으며, 일상생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제품군 간의 연결성(connection)이 강조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및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해 관련 시장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동시에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른 보안 문제도 주요 이슈로 떠올라 고성능 감시카메라 등 보안 관련 산업도 점차 커지고 있음
 -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국토 전역에 광통신 브로드밴드를 설치하고, 5G 기술개발을 위해 10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계획도 발표함
- (자동차) 영국은 세계 14위, 유럽 내 4위의 자동차 생산국
 -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2018년 802억 파운드의 매출과 총 86만 6,000명을 고용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최근 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음
 - 2018년 기준 자동차 생산대수는 총 152만대로, 전년 대비 9.1% 감소했는데, 이는 국내 및 글로벌 경기 하강의 영향으로 분석됨
 - 영국에는 벤틀리(Bentley), 재규어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등 프리미엄 브랜드 및 혼다(Honda), 닛산(Nissan) 등 글로벌 자동차 공급업체가 위치하는데, 최근 공장폐쇄, 신규모델 출시 계획 축소, 부진한 영업실적으로 인한 감원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영국 자동차 산업은 경기변동 같은 순환적 요인 이외에 배기가스 규제 강화, 전기자동차 산업 성장, 공제경제 확산 같은 요인도 커서 향후 자동차 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개편이 예상됨
- (에너지) 거대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의 본거지
 - 영국의 에너지 시장은 2017년 기준 837억 파운드를 창출했으며, 산업투자는 126억 파운드 규모에 달하고, 약 68만 명의 직·간접 고용인력을 창출함
 - British Petroleum, Royal Dutch Shell 등 글로벌 석유회사 중 2개사를 보유
 - 1997년 교토 의정서 협약 이후 탄소배출 의무감축국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탄소 규제를 시행, 정부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감축을 목표로 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참고] 대표산업별 글로벌기업 리스트

업종	국가	기업명	주재국 진출형태	최근 주요 동향
금융	영국	Barclays	영국기업 (서비스)	·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핀테크 관련 혁신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관계를 맺고, 기술 개발 비용 및 인프라 제공
의료	영국	GlaxoSmithKline	영국기업 (제조, 판매, R&D)	· B2B 지원 정책의 하나로, 중소 또는 대규모의 의약품 출시 및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실험까지 완전 통합 공급망을 지원 중 · 2020년 공장 가동을 목표로 중동 지역에서의 사업 확장을 계획 중
의료, IT	영국	NHS	영국 공공기관 (서비스)	· 의료비 예산 절약을 위해 혁신적이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품에 대한 관심 증대 · 특히, 텔레케어, 텔레헬스, 엠헬스, 헬스케어 분석, 디지털 보건 시스템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
자동차	영국	Jaguar Land Rover	영국기업이었으나, 인도 Tata Motors사에서 2008년 인수 (생산, 판매, R&D)	· 중국 시장 판매 부진 및 디젤 자동차에 대한 각종 규제 등으로 2018년 회계연도에 3억 5천 파운드 적자 기록 ·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사업 추진을 통한 활로 모색
에너지	영국	BP	영국기업 (생산, 판매)	· 최근 알래스카 지사를 60년 만에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미국 기업인 힐콥에너지에 56억 달러에 매각

라. 정책·규제 환경(산업 및 기업관련 주요 정책)

국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전략 발표

-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여타 G7 국가에 비해 영국 산업의 생산성이 낮다는 분석 하에, 성과를 개선해야 할 5대 핵심 분야를 강조
 - 5대 핵심 분야 : 혁신경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프라 업그레이드, 친기업 환경 조성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 또한 정부는 영국이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도전과제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 경제, 청정 성장, 미래형 이동수단 및 고령 사회를 선정, 향후 해당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및 정부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도입

- (특허박스) 정부에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혁신의 결과물이 영국에서 상업화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인화된 법인세(10%)를 적용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정부는 외국기업들이 영국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샌드박스제도) 일정 기간 기존 금융 규제를 면제 또는 변경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여, 핀테크, 블록체인 등 혁신적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규제 부담 없이 시범적용 및 평가받을 수 있는 親혁신 생태계를 마련함

- 영국 금융감독청은 매년 2기수씩 6개월간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6년~2019년 4월까지 1~5기 동안 총 118개 기업이 참여한 후 최소 40%가 투자유치에 성공함
- o (비자) 영국 정부는 2019년 3월 비유럽경제지역(Non EEA)의 유능한 해외 스타트업 및 혁신가를 유치하기 위해 기존의 Tier 1 Exceptional Talent 비자 및 Tier 1 Entrepreneur 비자를 폐지하고, 혁신가 비자(Innovator Visa) 및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를 신설함
- 2019년 9월에는 이민법을 개정해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시 기존의 4개월만 주어지던 취업비자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해 장기 취업기회를 제공함

차량 배기가스 감축 계획(Road to Zero Strategy) 발표

- o 영국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70%를 초저공해(ultra low emission) 차량으로 대체하고, 전체 밴(van) 판매량의 40%까지 초저공해 차량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휘발유 및 디젤 차량의 판매를 2040년 이후 중단할 예정임
- o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2 시장 분석

※ 요약

- 영국은 금융, 서비스 산업 중심지로, 핀테크 및 AI 분야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달
-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매력도의 점진적 하락
- 영국은 한국의 17대 수출 대상국이자, 25대 수입 대상국
- 영국의 EU 탈퇴 대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영국 시장 특징

- 세계 최대의 금융 허브 국가로 서비스 산업 중심이자 무역의존형 경제구조 보유
 - 2018년 기준 GDP 대비 무역규모 61%로 무역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여 GDP의 79%를 차지하고 있음
 - * 주요국 GDP 대비 무역비중(World Bank, 2018년 기준) : 독일(87%), 프랑스(63%), 이탈리아(61%), 중국(38%), 일본(2017년 37%), 미국(2017년 27%) 등
- ICT 금융 강국을 위한 핀테크(Fin Tech) 및 인공지능(AI) 기술 육성
 - 영국은 세계 ICT 시장규모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ICT 발전지수(IDI : ICT Development Index)를 보면, 2017년 기준 아이슬란드(8.89), 한국(8.85), 스위스(8.74), 덴마크(8.71)에 이어 5위(8.65) 수준으로 상위권에 위치함
 -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과 앤드루 왕자가 설립한 비영리재단인 피치애펠리스(Pitch@Palace) 등이 핀테크 및 블록체인 등 스타트업 발굴에 앞장서는 등 4차 산업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우수
 - 정부는 차세대 집중 육성산업으로 사물인터넷(IoT), 무인자동차 등을 선정, 추진 중이며, 2018년 2억 240만 파운드의 기금을 무인 자동차 R&D 분야에 투자함
- 공공보건복지체제인 NHS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의료바이어로서 영국의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의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하고 있음
 - 영국은 세계 5위, 유럽 3위 규모의 의료 시장을 보유한 대형 조달 시장이지만 NHS의 재정 적자 때문에 생산지에 개입이 없고, 혁신적이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찾고 있으며, AI 스타트업들과의 협력모델 개발도 확대하고 있음
 -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은 텔레케어(ICT를 활용한 원격 케어), 텔레헬스(장거리 임상데이터 교환), 모바일헬스(App과 IoT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시스템(전자차트, 전자 처방 등) 관련 품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나. 교역

영국의 수출입 동향

- 영국의 수출은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대 수출국은 1위 미국, 2위 독일로 나타남
 - － 영국의 2018년 전체 수출 규모는 GTA 기준, 전년 대비 10.33%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출 중 상위 10위 수출대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3.09%로, 전년 61.81%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영국의 수입 역시 유럽과 미국, 중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럽국가의 수입 비중이 절반 이상임
 - － 상위 10위 수입대상국은 미국(2위), 중국(3위)을 제외하고, 모두 유럽 지역에 집중
 - － 영국의 2018년 전체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4.69% 증가하였으며,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5.02%로 전년 64.17% 대비 소폭 상승함

영국의 수출입 동향(2018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주요수출국	금액	순위	주요수입국	금액
1	미국	65,064	1	독일	91,647
2	독일	47,521	2	미국	65,391
3	네덜란드	34,580	3	중국	62,754
4	프랑스	31,884	4	네덜란드	55,936
5	아일랜드	28,305	5	프랑스	36,805
6	중국	27,471	6	벨기에	34,827
7	스위스	25,368	7	이탈리아	25,899
8	벨기에	19,105	8	노르웨이	25,647
9	이탈리아	14,026	9	스페인	21,013
10	스페인	13,924	10	아일랜드	18,270
⋮	⋮	⋮	⋮	⋮	⋮
16	한국	7,741	26	한국	5,337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9년 8월)

- 2018년 기준 영국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입품은 기계류로 각각 전체 수출품 비중의 14.8%, 전체 수입품 비중의 12.9%를 차지함

영국의 주요 수출입품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출품목	금액	순위	수입품목	금액
1	기계(HS 84)	72,442	1	기계(HS 84)	87,119
2	자동차(HS 87)	55,451	2	자동차(HS 87)	74,999
3	광물연료(HS 27)	47,697	3	전자기계(HS 85)	68,962
4	보석·메탈(HS 71)	47,494	4	광물연료(HS 27)	67,280
5	의료용품(HS 30)	30,168	5	보석·메탈(HS 71)	40,221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9년 8월)

주요 경쟁국과의 수출입 현황

- 2018년 기준 영국의 수출대상국 중 중국은 6위, 일본은 14위를 차지
 - (중국) 영국의 대(對)중국 수출품으로는 보석·메탈(전체 수출의 22.3% 차지), 자동차(19.0%), 광물연료(18.4%), 기계(8.3%), 의료용품(5.3%) 순임. 영국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기업으로는 재규어랜드로버(Jaguar Land Rover)가 있음
 - (일본) 영국의 대(對)일본 수출품으로는 기계(26.0%), 자동차(19.1%), 의약품(11.6%), 광학·의료기기(9.0%), 보석·메탈(4.5%) 순이며, 기계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함
- 2018년 기준 영국의 수입대상국 중 중국은 3위, 일본은 13위를 차지
 - (중국) 영국의 대(對)중국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5.36%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전자 기계(전체 수입의 26.3%), 기계(18.5%), 가구(6.4%), 완구(5.7%), 의류(3.6%) 순임
 - 최대 수입품인 전자 통신기기 주요 기업에는 샤오미(Xiaomi), 원플러스(OnePlus), 화웨이(Huawei)가 있는데, 이중 화웨이 통신 장비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문제 삼아 화웨이 장비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영국 정부는 화웨이 장비사용의 허용여부를 올해 안으로 결론 내리기로 함
 - (일본) 영국의 대(對)일본 수입품으로는 기계(26.5%), 자동차(17.8%), 전자 기계(13.3%), 보석·메탈(8.8%), 철도차량(6.4%) 순임
 - 최대 수입품인 엔진 기계류 주요 기업에는 혼다(Honda), 마쯔다(Mazda), 미쓰비시(Mitsubishi) 등이 있음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EU의 통상 규제를 따르며, 대외 수입규제도 EU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EU와 별개로 영국만이 갖는 진입장벽은 없음.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독자적인 수입규제 적용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봐야 함

수출 성공 사례 : 보일러 선진시장에서 시장입지 굳힌 K사

지원과정

- 영국 시장은 기존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진출에 애로가 많은 시장으로 진입전략이 필요함
- (CSR 사업) 런던무역관은 공동마케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국전 참전용사 지원사업을 실시, K사는 보일러를 기증하고, 협력 파트너인 영국의 보일러 유통상은 보일러를 설치하는 역할을 수행
- (월드챔프) 런던무역관은 월드챔프 사업 로드맵에 기반하여 인증등록, 마케팅 방향성, 방한바이어 초청 및 동영상 제작 등을 지원

지원결과

- 영국에서 우리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함께 2017년 해외 매출 7백만 불 목표에 기여하였고, 보일러 메이커가 시장을 주도하는 세계 1위 보일러 시장인 영국에서 소비자에 큰 호응을 얻고 입지를 굳힘
- 그간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구축한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2018년 신모델 출시에 앞서 이미지 및 저변 확대를 지원하여 2018년 보일러 수출 10만 불 달성에 기여함

다. 투자

영국의 투자 매력도

- Ernst&Young에 따르면, 영국은 2018년에 1,054개의 FDI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독일과 프랑스에 앞서 유럽에서 FDI 1위를 차지했지만 2017년의 1,205개 FDI 프로젝트에 비해 13%가 감소함
 - 영국은 여전히 디지털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 분야의 유럽 점유율은 23%로 4포인트 하락했으며, 브렉시트로 인한 제조업, 본부(HQ), 자동차 및 화학 부문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로 인해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함
- EY 조사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영국의 투자 매력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투자자는 2017년 5월 기준 32%에서 2018년 30%로 감소, 매력도가 현상 유지될 것이라는 투자자는 34%에서 31%로 감소한 반면, 투자 매력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31%에서 36%로 증가하는 등 브렉시트 협상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영국이 유럽단일 시장을 탈퇴할 경우, 향후 3년간 영국에 대한 투자계획을 타 유럽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투자자는 30%로 나타남
 - EU 역외국에 위치한 상당수의 기업은 영국의 EU 단일 시장 접근성과 지리적 위치로 인해 영국을 유럽 시장 사업의 이상적인 거점으로 보았다고 응답한 바 있음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투자 매력도 변화

구분	2016년 3월 조사 (브렉시트 투표 전)	2016년 10월 조사 (브렉시트 투표 후)	2017년 조사 (브렉시트 협상 시작)	2018년 조사 (브렉시트 협상 진행 중)	2019년 조사 (브렉시트 협상 진행중)
향상	36%	29%	32%	30%	26%
현상 유지	44%	30%	34%	31%	29%
하락	16%	34%	31%	36%	42%

자료 : EY 2019 UK Attractiveness Survey(2019년 9월)

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37%를 기록함

대영(對英)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현황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입액	58.4	265.8	46.6	28.9

자료 : Economic Intelligent Unit(2019년 9월)

- 영국 국제통상부에 따르면, 2018~2019년도 개별 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366건으로 프로젝트 투자 건수 1위를 차지했으며, 이밖에 비즈니스 및 소비자 서비스 부문이 155건, 금융서비스 부문이 148건으로 그 뒤를 이음

2018~2019년 산업별 투자프로젝트 건수 및 총 일자리 개수

순위	구분	프로젝트 수(건)	총 일자리 수(개)
1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366	11,589
2	비즈니스 및 소비자서비스	155	6,345
3	금융서비스	148	5,132
4	환경 및 인프라 수송	142	6,095
5	고급엔지니어링 및 공급망	130	2,187
6	식음료	115	3,864
7	생명과학	110	2,188
8	도매	121	3,743
9	자동차	93	2,712
10	전자 통신	85	4,394
11	생명공학 및 제약	53	1,290
12	화학 및 농업	43	732
13	우주항공	42	930
14	추출 산업	41	1,279
15	재생에너지	41	3,093
16	화학 및 농업	48	1,097

주* : 순위는 프로젝트 수 기준

자료 : 영국 국제통상부(2019년 9월)

- 2018년 기준 영국의 총 M&A 거래 금액은 3,2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3% 감소

영국의 총 M&A 거래금액 동향

(단위 : 십억 파운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판매	351	253	335	327

자료 : IMAA(Institute for Mergers, Acquisitions and Alliances)(2019년 9월)

주요 경쟁국의 대영(對英) 투자 현황

- 주요 경쟁국별 투자진출 현황
 - 2018~2019년 대영(對英) 투자진출 1위 국가는 미국으로 총 440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위 독일의 109건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가 106건으로 3위를, 중국/홍콩이 99건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음

2017~2018년 주요 국가별 대영(對英) 직접투자 현황

순위	국가명	프로젝트 수(건)	신규 일자리창출(개)
1	미국	440	16,388
2	독일	109	7,741
3	인도	106	4,858
4	이탈리아	101	1,515
5	중국/홍콩	99	1,739
6	프랑스	98	4,650
7	일본	81	2,691
8	캐나다	68	1,229
9	호주/뉴질랜드	61	1,746
10	네덜란드	60	2,204

주*: 순위는 프로젝트 수 기준

자료 : 영국 국제통상부(2019년 9월)

○ 경쟁국별 진출전략

- (중국) 영국의 발달한 금융 인프라와 매력적인 M&A 시장은 중국에게 서구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05~2017년 대영(對英) 해외투자액은 137억 달러로, EU 국가 중 영국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은 영국기업과의 M&A 등 직접투자를 늘림으로써 영국의 우수한 브랜드, 금융, IT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며, 에너지 및 운송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브렉시트를 계기로 두 나라는 FTA 체결 등을 통해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영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양국 간 긴밀한 군사적 협력 등을 고려할 때, 영국과 중국 관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영국에 진출한 자동차와 중공업 등 분야의 일본 대기업들은 한국, 중국 등과는 달리 진출 역사가 길어 현지에서 모두 공장을 운영하여 자체 생산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환리스크에 강하며, 특히 자동차 산업은 2019년에 브렉시트 대비 및 수익성 악화에 따라 혼다와 도요타, 닛산 등 주요 완성차 기업이 영국 내 생산계획을 취소하거나 철수를 발표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은 2019년 2월 1일부로 EU와 EPA를 발효, 일본은 94%, EU는 99%의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해 자국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리게 됨

투자진출 진입장벽

- 영국은 법인설립 자체에 어려움은 없으나, 아직까지는 EU 회원국으로서 국내법보다 EU법에 우선하며, 이에 따라 EU의 각종 규제가 적용돼 독자적인 규제 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EU 탄소배출 의무감축 규정에 따라 영국도 강도 높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 투자 시 이러한 규제들을 고려해야 하며, 브렉시트 이후 前 메이 총리는 영국의 법인세를 G20 국가 중 최저치로 낮출 것을 제시하는 등 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

투자진출 성공 사례 : 3D 증강현실 모델링 기술 개발 D사

- 증강현실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2016년 6월 영국법인 설립 이후 현재 영국직원 5명 채용 중
- 기존의 가상현실, 게임 등의 3D 콘텐츠 업계가 콘텐츠 제작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반 비디오 영상에서 대상체 그대로를 3D 모델링하는 기술을 개발
- 현재 영국 정부가 2,000억 원을 투자한 5G Innovation Centre 및 University of Surrey와 공동으로 영국 정부 R&D 과제를 진행하는 등 영국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원 중
- MWC 2018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공동 주제관인 이노베이션 시티, 보다폰 부스 등 동시 5곳의 부스에서 5G 기반 홀로그램 혼합현실 통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으며, 파트너사와 함께 초고화질화 연구 및 상용화를 진행 중
- **성공포인트**
 - 영국에서 인맥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데모데이 마련 및 기술을 시연하며, 회사와 기술을 알리는 이벤트를 개최
 - KOTRA가 마련한 한국 스타트업의 영국진출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확장
 -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직접 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유관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사와 기술을 알리고, 폭넓은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라. 프로젝트·공공조달

교통·통신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 (노후 철도 개선 프로젝트) 2015년에 철도도로청(Office of Rail and Road)은 영국 철도차량의 평균 나이를 21세라고 진단하고, 구형 차량의 열악한 환경 및 낮은 성능으로 고객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교체 필요성을 강조함. 영국 철도회사협회인 철도운송그룹(Rail Delivery Group)은 2017년 ‘객차 장기 전략 계획’을 발표, 2024년까지 교체 및 도입될 신규 철도차량 수를 4,195대(이후 6,100대로 목표치 수정)로 밝히면서 이를 통해 철도차량 평균 나이를 15세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 중

○ 통신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 정부는 2018년 11월, 5G 실현을 위해 2027년까지 68억 파운드를, 전역 광통신 브로드밴드 설치를 위해 2033년까지 6천억 파운드의 국가 인프라 투자보고서(National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ipeline 2018)를 발표하고, 정부는 7억 7천만 파운드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민간 투자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에서 공급 받기로 하고, 통신 인프라 개선을 추진 중

국민건강서비스(NHS) 공공조달

- NHS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단일 의료제도로 영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영 보건복지 체제를 지칭하며, 영국 의료 시장 총매출액의 약 85%를 차지해 시장을 거의 독점함과 동시에 시장의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하고 있음

- NHS 예산은 2018~2019년 회계연도 보건부 예산 1,290억 파운드 중 89.1%(1,150억 파운드)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9~2020년 예산은 1,340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최근 예산 증가율이 지출 규모 확대보다 낮아 적자 폭이 지속되는 추세임
 - 2014~2015년 NHS에서 발생한 적자는 8억 2,200만 파운드였으나, 2015~2016년에는 그 규모가 3배로 증가, 무려 24억 5,000만 파운드라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2017~2018년도에는 9억 6,000만 파운드 적자를 기록함
 - NHS는 예산 절약을 위해 2006년 의료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조직인 NHS Supply Chain을 구성, NHS 산하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제품을 통합 구매함으로써 제품 구매 단가를 최대한 낮추고자 노력해오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NHS가 헬스케어 분야의 AI 스타트업들과 협업하여 AT 문진 서비스 및 원격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상실험 및 학술자료 등 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AI 분석을 통해 신약 및 새로운 처방 프로그램의 설계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류

한-영 교역 동향

- 영국은 2019년 8월 기준 한국의 17대 수출 대상국이자, 25대 수입 대상국임
- 한국의 대영(對英) 수출은 2019년 8월 기준 4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였고, 수입 규모는 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함
- * 제트유 및 등유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해 수출 3위를 차지했고, 아연도강판의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41%가 증가함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전체 수출의 23.6%), 선박(15.6%), 제트유 및 등유(9.5%), 항공기부품(6.1%) 순
-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전체 수입의 21.3%), 의약품(7.6%), 원유(7.1%), 계측기(3.4%) 순

한-영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대영(對英) 수출	금액	7,390	6,288	8,122	6,359	4,104
	증감률	27.8	-14.9	29.2	-21.7	6.3
대영(對英) 수입	금액	6,127	5,212	6,319	6,809	2,942
	증감률	-17.7	-14.9	21.2	7.8	-38.4
무역수지		1,263	1,076	1,803	-450	1,162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9년 8월 기준)

2019년 상반기 한-영 주요 교역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대영(對英) 수출			대영(對英)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승용차	969	6.3	승용차	629	-25.5
2	선박	643	-1.0	의약품	226	4.5
3	제트유 및 등유	390	191.2	원유	211	-87.1
4	항공기 부품	264	-0.1	계측기	102	47.3
5	자동차 부품	151	-16.9	원동기	99	-21.3
6	건설중장비	112	-20.9	주류	97	2.3
7	축전지	93	-9.4	합성수지	76	7.4
8	아연도강판	92	41.8	분석시험기	55	17.9
9	합성수지	89	-4.6	기타 정밀화학 제품	47	26.3
10	타이어	78	-9.7	농약	41	-42.4

자료 :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2019년 8월 기준)

나. 투자

우리나라의 대영(對英) 투자 현황/영국의 대한(對韓) 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영(對英) 투자

- 2017년 한국의 대영(對英) 투자는 총 91건, 18억 9,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건수는 13.8% 증가, 신고액은 9% 증가
- 2017년 한국의 대영(對英) 투자 주요 산업 분야는 1위 금융 및 보험업(10억 100만 달러), 2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4억 3,900만 달러), 3위 운수 및 창고업(1억 4,300만 달러) 순임

대영(對英) 투자진출 동향

(단위 : 건, 백만 달러)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78	900	80	1,739	91	1,894	169	1,95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9년 9월)

○ 영국의 대한(對韓) 투자

- 2018년 신고액 기준, 영국의 대한(對韓) 투자는 총 77건, 11억 7,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건수는 8.7%, 신고액은 52.7% 감소

대영(對英) 투자유치 동향

(단위 : 건, 백만 달러)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63	259	66	360	88	2,218	77	1,17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년 9월)

○ 현황 및 전략

- 영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은 금융(은행, 증권, 보험), 무역 및 유통, 전기 및 통신, 자동차 등 대기업 중심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물류, 소비재 등 분야에 진출해 있으나, 그 규모와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 또한, 대부분 진출기업이 영국 내수 판매를 목적으로 한 판매법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내수시장 변화 및 환율변동과 같은 경제 불안정 요인에 따라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점이 특징임. 특히 브렉시트와 같은 중대한 경제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영국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 환헤지(foreign exchange hedge) 방안 등 대비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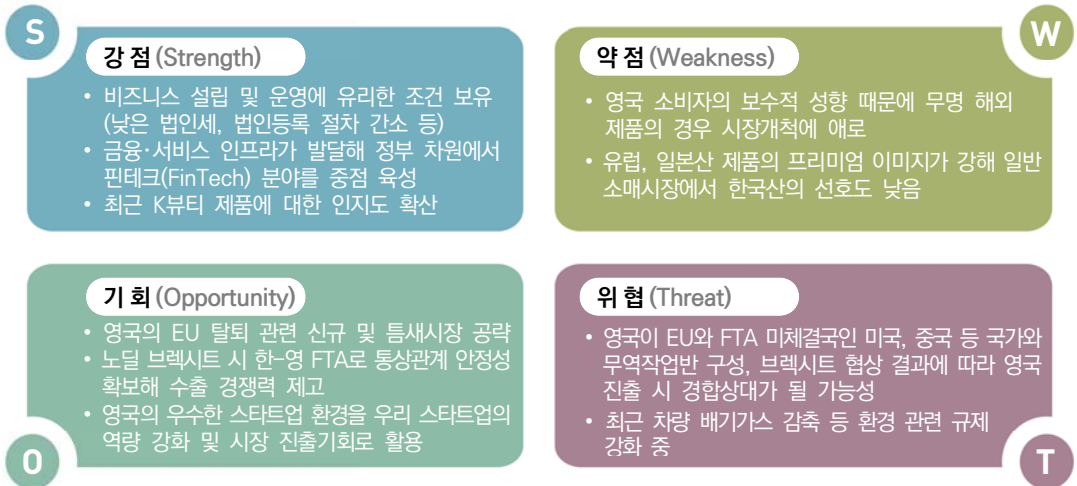
- 2019년 10월 31일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영국은 한-EU 자유무역협정 당사국 지위를 상실, 영국과 한국 간 교역에는 이 협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됨.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비, EU와의 협상은 물론 역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한국과는 2016년 12월 영국에서 개최한 제3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에서 한-영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 설치 합의를 시작으로 이후 3차에 걸친 무역작업반 회의를 통해 한-영 무역 투자 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한-영 FTA 추진에 합의하고, 2019년 6월 10일 한-영 FTA 협상에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함
- 한-영 양국은 2019년 8월 22일 FTA를 체결함으로써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EU FTA에서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됨
 - (상품관세)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 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4.5%)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 가능
 - * 현재 대(對)영국 수출 시 전체 상품 중 99.6%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 한-영 FTA 未체결 시 평균 4.73% 수출 관세 부과
 - (원산지)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 시간을 감안하여,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
- 양국은 노딜 브렉시트로 금번 FTA가 발효되면, 2년 내에 개선협상을 개시하기로 하고, 또한 딜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의 EU 탈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한-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함

Ⅲ. 진출전략

- 브렉시트를 틈새시장 발굴의 기회 요인으로 삼아 산업별 분야별 수출시장 창출 노력
- 노딜 브렉시트 시, 한·영 FTA 활용한 영국과의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로 경쟁력 제고
- 정부 정책 및 산업별 트렌드 분석을 통한 타깃 시장 도출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영국 시장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영국 금융기관 핀테크 분야 파트너링 추진 • 헬스케어 산업 혁신기술 보유기업 진출기회	핀테크, 헬스케어 등 유망산업 진출
ST 전략 (강점 활용)	• K-뷰티 관심 확산을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 • 혁신 제품 및 생활밀착형 마케팅으로 시장 확대	브랜드 가치 제고 전략 추진
WO 전략 (기회 포착)	• 브렉시트 전후 영국의 수입선 대체 시장 선점 • 가격 및 품질 경쟁력으로 영국 시장 공략	브렉시트를 영국 진출기회로 활용
WT 전략 (위협 대응)	•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관련 주요 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 관계 구축	미래형 자동차 시장 진출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브렉시트 시, 한·영 FTA를 활용한 신규 및 틈새시장 발굴,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 협업 확대로 미래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2-1. 브렉시트 시, 한-영 FTA 활용한 신규 및 틈새시장 발굴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영국의 EU 탈퇴가 2019년 10월 31일로 예정돼 있으며, 9월 초 유럽연합탈퇴법이 발효됨에 따라 영국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 또는 3개월 추가 연기 등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음
- 브렉시트 시, 영국과 EU 간의 무역관계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 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영 FTA를 활용, 신규 및 틈새시장 발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영국의 EU 탈퇴일(2019년 10월 31일)이 임박한 가운데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법 발효에 따라 현재 영국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며, 10월 19일까지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에 합의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의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두 가지 모두 실패할 경우 영국이 EU에 2020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의 추가 연기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브렉시트 향방에 따른 미래 교역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9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 7억 8천만 유로의 긴급 자금계획을 발표, 노딜에 따른 EU 회원국의 혼란에 대비하도록 함
- 영국 정부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와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을 설치, 브렉시트 이후의 무역관계 수립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 중
 - 우리정부는 2019년 8월 한-영 FTA를 타결해 한-EU FTA의 혜택을 향유하기로 함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영국의 대(對)EU 주요수입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류, 전력기자재, 전자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로, 해당 산업 기업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틈새시장을 발굴하고, 한-영 FTA를 활용해 우리가 강점을 지닌 품목들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영국 정부는 2018년에 항공우주, 인공지능(AI), 자동차, 건설, 창조 산업, 생명과학, 원자력, 해상 풍력, 철도, 관광 등 10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과 함께 '분야별 합의(Sector Deals)'를 발표하고, 이들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함
 - 미래형 자동차, 제약바이오, 핀테크 등 4차 산업 관련 분야의 우수한 스타트업과의 다양한 협력 모델 개발로 우리기업의 진출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2.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 협력 추구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정부의 차량 배기가스 환경규제 강화를 비롯해 차량 경량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 특히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차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우리기업들이 현지 스타트업들과의 R&D 협력 등 다방면의 협력을 모색해 역량 강화 및 수출 기회 확대가 필요함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영국은 2040년 이후 휘발유 및 디젤 차량의 판매를 중단하며, 이를 위해 친환경 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기존 도로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 무공해 차량 판매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Road to Zero’ 전략을 2018년 7월 발표함
 - * 차세대 배터리 기술 연구에 약 2억 4,600만 파운드 지원 예정
- 주력 모델인 디젤차 판매 감소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사업 추진이 확대되는 추세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향후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인 공급체인(Supply Chain) 기반 방식이 아닌 허브(Hub)-스포크(Spoke) 방식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발전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기업은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전문 업체 및 완성차 업체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관련 분야의 역량 강화 및 수출기회를 찾아야 함
 - 재규어랜드로버(JLR)의 경우,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사업을 확대하면서 스타트업들과 직접 접촉해 협업을 추진 중이어서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기회가 됨
 - * 2019년 7월 전기자동차 투자계획 발표, 2020년부터 매년 15만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 설립 추진
- 영국은 런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스타트업 크러스트가 잘 구성되어 있고, 한국의 관련 분야 스타트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음으로, 기술협력을 통한 우리 스타트업들의 영국 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해야 함
- (유망분야) 전기 배터리, 경량화차체 등 자동차 주요 부품 및 IT 등 미래 차 관련 부품

2-3. 제약·바이오 분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확대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영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많아 라이선싱, M&A, 공동 협력 등 외부와의 협업을 추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토양이 우수함
- 우리기업들이 영국 스타트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다양한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최근 신약 개발 방식은 기업 자체 개발보다 라이선싱, M&A, 공동 협력 등 외부와의 협업을 추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영국은 개방형 혁신으로 협업하기에 이상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음
 - 딜로이트 분석에 따르면, 개방형 혁신을 통한 신약개발 성공률이 자체 개발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라이선스를 구입해 특정 지역에 의약품 판매권한을 갖는 라이선싱 인(L/I)은 제약사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외부 역량을 통해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식임
 - 신약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M&A, 기술협력, 공동 연구 등도 확대되고 있음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한-영 제약 산업은 단순히 수출입 관계가 아닌 신약 파이프라인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한 관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양국의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 사례가 크게 늘고 있음
 - 특히 국내 대학병원 및 제약회사들과 영국의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과의 협업 및 M&A 사례가 최근 늘어나는 추세임
 - 우선적으로는 한국기업이 라이선싱 인(L/I)이나 M&A를 할 수 있는 영국 스타트업을 발굴 및 협력을 추진하고, 추후 양국의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이 라이선싱 아웃(L/O)할 수 있는 현지 대형 제약사를 발굴,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유망분야) 바이오신약, 항암제 및 감염성 질환제, 파킨슨병 신약치료제 등

2-4. 혁신제품 앞세운 K뷰티 제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영국 내 K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뷰티박스,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마케팅 톨을 활용한 우리기업의 영국 시장 진출사례가 늘어난 반면, 혁신 제품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
- 영국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비율이 높고 있어 아마존, e-Bay 등 대표 온라인 플랫폼 입점이 중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영국의 대(對)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2018년 약 4,056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49% 성장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성장률 172%를 기록함
 - 이중 스킨케어, 아이 메이크업 제품이 전체 수입 중 약 90% 이상을 차지

- 한편 한류 화장품 시장은 최근 급성장함에 따라 시장이 성숙 단계에 이르고, 영세 유통업체들의 난립과 저가용 제품들의 수입 확대로 현지에서 브랜드 가치 형성과 가격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시장의 성장세는 유지되나, 2, 3년 전에 비교해 신규 시장 진출이 어려운 만큼 차별화된 마케팅과 혁신제품을 앞세운 브랜드화 전략이 필요함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뷰티박스, 팝업스토어, 소셜미디어 홍보 등 영국 진출 초기에 입체적인 제품홍보를 통해 시장조사 및 인지도 형성, 이후 K-뷰티 사절단 참가를 통해 현지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추진
- 요가 등 명상업계를 대상으로 에센셜 오일 및 향수 등 힐링 제품 같은 맞춤형 고급 제품 시장을 공략해 생활밀착형 마케팅을 전개하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음
- (유망품목) 스킨케어, 아이메이크업, 면도·탈취·샤워용 제품, 매니큐어 등
- 스킨케어와 같은 기초화장품 시장을 중심으로 K-뷰티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마스크 팩을 포함한 스킨케어 품목은 색조 화장품에 비해 인증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워 진출에 용이함
- Cruelty-Free(동물성 원료 미포함, 동물실험 미실시), Vegan, Recycle friendly 품목이 유럽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2-5. 혁신기술 보유한 스타트업의 영국 진출기회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영국은 금융 산업이 발달하여 스타트업 자금 조달에 유리한 국가이며, 정부는 국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8~2019년 우리 스타트업이 영국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등 진출사례가 늘고 있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스타트업의 영국 진출 가능성을 확인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영국은 발달한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창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혁신의 결과물이 영국 내 상업화되도록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 시행, 법인세 인하 및 창업가 비자 제도 개편 추진 등을 통해 親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 중
- 런던시 공식홍보 기관인 런던 앤 파트너스(London&Partners)에 따르면, 2018년 영국 기술(tech) 분야에 대한 VC 투자는 18억 파운드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영국 전체 투자유치액의 약 72%를 차지함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영국의 주요 엑셀러레이터(Seedcamp, Techstars London) 프로그램 지원 및 스타트업과 협업 프로그램을 보유한 현지 재단 및 대기업과의 협업기회 발굴
 - 앤드루 왕자가 설립한 비영리재단인 피치앳펠리스는 지난 5년간 62개국 120여 차례 스타트업 피칭대회를 개최, 약 800개 기업을 후원해 11억 1,300만 파운드의 경제가치 창출
 - * 2019년 5월 '피치앳펠리스 코리아 1.0' 개최로 한국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기회 제공
 -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은 영국 국제통상부(DIT) 등과의 민관 협업을 통해 국내의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 영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 2019년 9월 현재 5개사 RBS/Natwest 프로그램 선정
 - 재규어랜드로버 등 현지 대기업들과의 협업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Techday London, Startup Grind Europe 등 영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스타트업 행사에 참가해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제품·서비스 홍보 필요
- 현지 VC 주요 투자 분야로 사이버 보안, 핀테크,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게임 등이 있으며, 해당 산업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리 스타트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

스타트업 성공 사례 : 'RBS/Natwest 기업가 엑셀레이터 프로그램' 최종 선정된 S사

- 영국 대표금융기업인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의 'RBS/Natwest 기업가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은 ▲금융보안 ▲핀테크/블록체인 ▲인공지능(AI) ▲모바일 등 기술 분야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영국 전역 12곳의 자원센터에서 글로벌로 진출하는 스타트업을 지원
- S사는 2019년 4월 KOTRA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해 9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10월부터 영국 런던에서 최장 18개월 동안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업무 공간, 기업 성장을 위한 코칭 및 네트워킹, 기술 멘토링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됨
- 이번 성과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에서 선택받은 결과라 의미가 크며, 영국을 시작으로 한국의 엔터프라이즈 보안 솔루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됨
- **성공포인트**
 - KOTRA가 마련한 한국 스타트업의 영국진출 상담회에 참여함으로써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현장 피드백 및 조언을 받음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습득
 - 피칭 및 상담회를 통해 S사의 사업 분야인 AWS 클라우드 암호화 보안시스템을 설명, RBS/Natwest측의 수요에 부응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1:1 비즈니스 상담회, 스타트업 피칭, RBS/Natwest AC 프로그램 설명회 등 유관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사와 기술을 알리고, 폭넓은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3 한-영국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전기자동차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인 공급체인(Supply Chain) 기반 방식에서 ‘허브(Hub)-스포크(Spoke)’ 방식의 오픈 이노베이션 통한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우리기업은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전문 업체 및 완성차 업체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 역량 강화 및 수출기회 창출 필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영국은 정부와 산업 간 협력을 통해 산업발전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제조업 분야별 합의(Sector Deals) 프로그램을 2018년에 수립, 운영하고 있는데, 미래형 이동수단 연구개발에 강점을 갖추고 있고, 정부의 지원도 많아 배터리 설계 및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 가능성이 있음
- 영국 자동차 산업은 Automotive 개념에서 Mobility 개념으로 진화 중임.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 부품 조립 및 모듈 생산 등으로 완성차를 생산하는 구조라면, 이제는 에너지 절감(전기차 등), 운전자의 편의(자율주행차) 등 이동에 관계된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
 - 공급방식(Supply Chain)도 2차 Tier → 1차 Tier → 완성차 방식 대신 완성차가 필요한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들을 직접 접촉하는 허브-스포크(Hub-Spoke) 방식으로 사업구조가 개편되고 있음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영국은 런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기반의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 크러스트가 잘 조성되어 있고, 한국 스타트업들에 대한 관심도 많음
 - 이를 활용, 영국의 스타트업들과 기술협력으로 우리 스타트업들의 영국 시장 진출기회 확대 필요

3-2. 제약·바이오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골든트라이앵글 중심의 우수한 스타트업 클러스터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기업(3곳) 존재 등 제약 환경도 우수
- 지원 분야는 한국 제약사들이 신약파이프 라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와 바이오 분야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 발굴을 중심으로 지원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영국 남동 지역의 골든트라이앵글 생태계(런던, 케임브리지, 옥스퍼드)내 우수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M&A 등 협업사례 발굴
 - 협력 방식으로는 개발 기술이나 특허권 등의 사용권을 빌려주는 라이선싱 아웃(Licensing Out), 특정 지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라이선싱 인(Licensing In), 신약 후보권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M&A 등이 있음
 -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기업창업지원기관인 메디시티(Medicity)는 런던을 기점으로 영국 생명 과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시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 확대 필요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매우 전문적인 산업 분야이므로, 유관 협회 및 스타트업 양성기관과의 협업 필수
 - * Medicity(런던), BioCity(노팅햄), Cell and Gene Therapy Catapult(런던) 등
- 제약·바이오 분야는 최근 한국과 영국 간에 개방형 혁신을 통한 협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분야 및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임
 - 이는 한영 제약 산업이 단순한 수출입 관계를 넘어 신약 파이프라인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파트너 관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사례
 - 협력 가능한 주요 분야로는 항암제, 중추신경계, 바이오신약, 인공지능 분야의 공동연구 및 기술 이전 등이 있음

3-3. 핀테크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이점을 갖추고 있으며, 기술 클러스터인 테크시티(Tech City)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활성화
- 양국 정부 기관 및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를 활용하고, 한국의 높은 ICT 인프라 수준과 혁신성을 통한 진출기회 확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영국은 2010년대 초반 런던 중심지에 기술창업기업 클러스터인 테크시티(Techcity))를 조성, 핀테크 산업의 생태계를 육성해 현재 5,000개 이상의 창업기업들이 밀집해 있음
-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실시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기술력 있는 해외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비자 개방, 애인절투자자의 투자금과 스타트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감세 등도 있음

- 민간투자사 카나리워프(Canary Wharf)그룹이 런던시와 협력해 영국 금융 중심지 카나리워프 지역에 세운 '레벨 39'는 세계 최대 핀테크 육성기관으로 유명. 레벨39는 핀테크와 스타트업들을 입주시키고, 멘토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 수행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2019년 5월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이 영국 핀테크 주간(UK Fintech Week, 4월 29일~5월 3일)에 런던에서 자산운용업·핀테크 산업 투자설명회(IR) 개최
 - 한국의 핀테크 산업 육성 노력, 서울 금융 중심지 현황, 외국계 핀테크 회사에 대한 지원제도 소개 등 교류 확대
 - 한국 금융위원회와 영국 금융감독청(FCA) 간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FinTech Bridge) 체결
-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2019년 5월 개최된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양국 핀테크 업계 간 협력을 논의하는 중요한 행사였으며, 금감원-딜로이트 간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협력 위한 MOU 체결
 - 금감원은 금융규제 및 감독 당국 간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Referral Mechanism) 등 자문 제공
 - 딜로이트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국내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홍보·해외진출을 지원
- 금융감독원은 2019년 6월 해외 감독기구(FSB), 글로벌 컨설팅업체(KPMG, McKinsey), 글로벌 리서치업체(CB-Insight) 보고서 등을 토대로 '글로벌 10대 핀테크 트렌드'를 선정, 발표했는데, 이를 참고해 영국과 협력분야 발굴

<글로벌 핀테크 10대 트렌드>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현황 및 전망
① 핀테크 기업 인수·합병 확대	수익모델이 검증된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선호 현상 반영
② 빅테크(Big-Tech) 기업의 시장 잠식 가속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결제, 대출, 보험 영역을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
③ 핀테크 기업과 전통 금융기관간 협력 강화	빅테크 기업 출현으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관계가 경쟁에서 협업으로 변화하는 양상
④ 핀테크 기업의 종합 금융플랫폼 사업 확대	(국내) 마이데이터오픈뱅킹 본격화시 핀테크 기업의 적극적 서비스 영역 확장 시도 예상
⑤ 핀테크 기업의 IPO 성공 추세 둔화	(국내) 핀테크 기업의 경영권 우려 등으로 기업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
⑥ 금융IT 인프라의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보안관리 및 비용절감 등의 사유로 핵심(Core)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
⑦ 인슈어테크의 성장	미국·유럽의 전통 보험사들이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아시아 지역에서 대재 보험 상품 출시 확대
⑧ 블록체인 기술 적용 확대	거래비용 절감 및 편리성 등으로 암호자산을 활용한 지급결제 서비스 활성화 예상
⑨ 레그테크(RegTech) 투자 가속화	(국내) 글로벌 대비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를 위한 레그테크 적용이 다소 부진 - 국내의 경우 주로 자금세탁방지 및 이상거래탐지 분야를 중심으로 레그테크 적용을 시도
⑩ 사회적 혁신금융의 부상	밀레니얼 세대의 관심 및 금융기관 니즈 등으로 임팩트 핀테크(Impact Fintech)의 성장 가능성 대두

자료 : 금융감독원

4 진출 시 유의사항

빈번한 무역 사기	강화되는 환경 및 안전 분야 인증
■ (현황) - 영국은 법인설립 시 등기이사 수 및 자본금 제한이 없어 설립이 용이한 편이며, 금융 거래가 발달해 있어 이에 편승한 무역 사기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 - 무역관에 접수된 무역 사기 사례로는 샘플 대금 수령 후 잠적, 계약 내용 및 절차에 반하는 선수금 요청, 가짜 배송업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적정보 조작, 판매자 이메일 해킹을 통한 허위 은행 정보 전달 등의 사례가 있음 ■ (대응전략) ☞ 무역 사기는 정상적인 회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해도 피해액 환수가 어렵고 수사당국에서도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예방이 중요 ☞ 의심스러운 거래 요구 시 무역관 및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신용정보 문의 및 계약에 근거한 절차 준수로 피해 예방에 만전	■ (현황) - EU 회원국을 포함한 영국에 수출하려면 공산품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인증으로 CE 마크 획득이 필수 - 친환경적인 제품에 부여하는 에코 라벨,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인 KITE 마크 등 환경 및 안전 분야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가 많아 인증 분야 및 절차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 ■ (대응전략) ☞ 분야별 강제인증 신청 시 수출상품에 따른 신청 절차가 상이해 유의해야 하며, 성능과 안전 인증이 필요한 인증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 ☞ 영국은 탄소배출 의무감축국으로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업은 탄소배출에 항상 유의해야 하며, 매립지 부담세, 기후변화 부담세 등 각종 세금을 기업에게 부과하므로 금전적인 대비가 필요

비즈니스 관행 1/첫 미팅의 반응	비즈니스 관행 2/100%의 선금금
■ (현황) - 영국 바이어들은 첫 미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음 - 속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긍정적인 감탄사를 많이 사용함 - 영국인의 남을 배려하는 이러한 예절이 우리기업들은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로 오해할 수 있음 ■ (대응전략) ☞ 미팅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다음을 막연하게 기약하고 미팅을 끝내지 말고, 2차 미팅의 스케줄을 미리 잡는 게 좋음 ☞ 긍정적인 반응 확인시 그 자리에서 다음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	■ (현황) - 영국에서 B2B의 거래 초기에는 대부분 100% 선금금으로 진행됨 - 바이어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신용거래가 이루어질 수는 있음 - 초기 거래에서 바이어가 100% 선금금으로 진행하길 꺼려할 경우, 그 거래에는 리스크가 잠재한다고 생각해야 함 ■ (대응전략) ☞ 바이어가 100% 선금금 조건 거래를 거부할 경우, 초기 2~3회 거래 후 거래조건을 변경해 줄 수 있으니 초기 거래는 반드시 100% 선금금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협의해야 함 ☞ 이 경우 바이어의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바이어의 재정 상태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음

비즈니스 관행 3/무역 경험 없는 바이어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 감소
■ (현황) - 영국에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 경험이 있으나, 영국의 바이어들은 수입경험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음 - 무역의 경험이 있을 경우 당연히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어, 특히 배송조건에 대한 용어(예 : EXW, FOB, CIF, DDP 등)를 바이어가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면 안 됨 ■ (대응전략) ☞ 거래계약 시 배송조건에 따라 제품의 실제적인 가격이 달라지므로 배송조건은 매우 중요함 ☞ 계약 시 반드시 바이어에게 배송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황) -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英-EU 간 미래관계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지 기업들의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부진한 상황 ■ (대응전략) ☞ 특히 철강 업계의 경우 영국 내 자동차 기업(Nissan, Honda) 등 주요 철강재 사용 부문에서 투자가 지체되거나 유럽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발생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B2B 수출이 감소 중이므로, 이에 대비한 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요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85076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458	대한수입액('18/US\$백만)	52
리튬이온 축전기	선정사유	전기 자동차 산업의 빠른 성장에 따른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 증가		
	시장동향	영국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14,000개소이며,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임 영국 정부는 추가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및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장려 중		
	경쟁동향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가격은 2010년부터 2017년도까지 약 80% 감소했으며, 이는 전기차 완성차 가격을 감소시켜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음		
	진출방안	브렉시트 등 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하여 시장 선점의 기회로 활용 가능		
품목명 2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3,701	대한수입액('18/US\$백만)	36
의료기기	선정사유	최근 NHS의 예산적자로 인해 혁신적이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스마트 헬스케어 중심으로 공공조달 기회 증가.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민간병원의 의료기기 수요도 증가		
	시장동향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NHS 및 민간병원의 관심이 증가해 관련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경쟁동향	처방전 앱, 원격의료서비스 등이 진출해 영국 내 의사·약사 및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음		
	진출방안	가격 경쟁력과 혁신성을 보유한 기업들은 NHS 조달 시장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치과기자재의 경우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및 임플란트 등의 민간병원 시장 진출을 추진		
품목명 3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2,380	대한수입액('18/US\$백만)	38
화장품	선정사유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시장동향	영국 화장품 시장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고가의 유명브랜드와 부츠에서 판매되는 중저가 화장품 시장으로 분리되며, 한국산은 중저가로 분리되고 있음		
	경쟁동향	고가제품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산 제품들이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진출방안	마스크 팩 등 색조 화장품에 비해 인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운 품목 위주로 진출을 고려해 볼 것 현지 시장 트렌드(클린 뷰티(Clean beauty), 비건 등)를 이용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고려		
품목명 4	HS Code	9405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1,831	대한수입액('18/US\$백만)	3.4
조명	선정사유	2014~2019년도 영국의 조명 산업 2.9% 성장		
	시장동향	영국의 조명 시장 매출액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8~2019년 매출액은 22억 9,000 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은 대영(對英) 수출 25위권		
	경쟁동향	2018~2019년도 기준 영국 조명 시장의 주요 제조(Manufacturing) 기업은 상위 4개 기업이 17.1%를 차지하며, 2018년 기준 영국 전체 조명 제조기업 중 82% 이상이 직원 수 20명 이하인 기업으로 분석		

	진출방안	정부조달의 입찰 및 계약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Contracts Finder를 통해 조명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영국 시장 진출		
품목명 5	HS Code	6404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1,896	대한수입액('18/US\$백만)	2.7
신발	선정사유	영국에 대한 신발 수입액 약 4배 증가		
	시장동향	영국 신발 시장 매출액은 지난 5년간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2019년 매출액은 49억 5천 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은 대영(對英) 수출 20위권		
	경쟁동향	2018년도 영국 신발 시장의 주요 소매(Retail) 기업은 상위 3개 기업인 C&J Clark Limited, Office Holdings Limited, Schuh Limited가 23% 이상을 차지		
	진출방안	인터넷을 통한 영국 소비자들의 소비형태 변화에 주목하고, 최근 부모들의 아동용 신발에 대한 관심도 증가 활용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핀테크(FinTech)	선정사유	금융 및 IT,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현지 시장 활용
	시장동향	영국 정부는 IT형 금융생태계인 핀테크를 영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채택해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음
	경쟁동향	정부 주도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 프로그램 및 현지기업 주도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음
	진출방안	바클레이즈 등 금융기관의 핀테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활용한 진출방안 모색
품목명 2		
사이버 보안	선정사유	최근 IT 시장 및 금융 서비스 시장 성장에 따른 사이버 보안 문제 대두
	시장동향	영국 정부는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사이버 위협, 보험 솔루션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경쟁동향	보안장비 시장 전반에 중국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카메라 장비 시장은 중국 기업이 시장을 선도
	진출방안	사이버 보안 관련 전시회 참여 및 사절단 참가 등을 통한 공공조달 참가기회 확대
품목명 3		
모바일 게임	선정사유	영국 모바일 게임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9.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시장동향	영국은 2018년 기준 3,700만 명의 게임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게임 시장임
	경쟁동향	영국은 8개 창조 분야 세금감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해당 분야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장려 중. 게임 산업은 8개 창조 분야 중 하나로 조건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진출방안	게임 관련 전시회 혹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을 위한 톨로씨의 게임 콘텐츠를 통한 진출도 노력할 만함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사 업 명	시기/장소
- 영국 런던 교육장비 BETT 전시회 * 교육 및 과학기기 수출 지원사업	1분기/영국 런던
- K-Beauty@London 팝업 스토어 및 수출 상담회 * 화장품 분야 영국 B2C, B2B 마켓 진출 지원사업	3분기/영국 런던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19/2020 예산안 발표	2019년 가을	
EU 정상회담	2019.10.17 ~ 18	
영국의 EU 탈퇴	2019.10.31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자/장소
소비재	인테리어 소품, 의류/주방용품, 육아용품	영국 Top Drawer 전시회	2020.1.12 ~ 14/런던 Olympia전시장
교육	교육장비, 교육 콘텐츠	영국 런던 교육 전시회 (BETT)	2020.1.22 ~ 25/런던 EXCEL전시장
소비재	문구, 사무기기, 완구, 게임	영국 버밍엄 춘계 소비재 전시회 (Spring Fair)	2020.2.2 ~ 6/버밍엄 NEC전시장
교육	교육장비, 교육 콘텐츠	영국 런던 학습&기술 전시회 (Learning Technologies)	2020.2.12 ~ 13/런던 EXCEL전시장
소비재	유기농 과자 및 케이크 등 고급 식음료	영국 고급 식음료 전시회 (Speciality&Fine Food Fair)	2020.9.1 ~ 3/런던 Olympia전시장

부록

對영국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I. 한-영국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영국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영국의 잠재력

- 영국은 2018년 GDP 기준 유럽 내 독일 다음의 경제 대국으로, 2016년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도 2016년과 2017년에 1.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예상보다 양호 수준 유지
 - 그러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으로 인한 기업투자 부진 등으로 2018년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9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2012년 이후 처음 -0.2%를 기록하는 등 브렉시트 리스크가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세계 최대의 금융 허브 국가로 서비스 산업의 중심이자 핀테크(FinTech) 육성 환경이 우수
 - 런던은 2017년 글로벌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비교에서 실리콘밸리, 뉴욕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유럽 내에서는 1위
- 영국은 세계 14위, 유럽 내 4위의 자동차 생산국
 -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2018년 802억 파운드의 매출과 총 86만 6,000명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벤틀리(Bentley), 재규어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등 프리미엄 브랜드 및 혼다(Honda), 닛산(Nissan) 등 글로벌 자동차 공급업체 위치
- 공공보건복지체제인 NHS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의료바이어로서 영국의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의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
 - 영국은 세계 5위, 유럽 3위 규모의 의료 시장을 보유한 대형 조달 시장으로 NHS의 재정 적자 해소 위한 AI 스타트업들과의 협력 및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

주요국의 대(對)영국 경제협력 현황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중국	- 영국의 발달한 금융 인프라와 매력적인 M&A 시장은 중국에게 서구 진출의 관문 역할(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05~2017년 대영(對英) 해외투자액은 137억 달러로, EU 국가 중 영국이 1위를 차지) - 중국은 영국기업과의 M&A 등 직접투자를 늘림으로써 영국의 우수한 브랜드, 금융, IT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며, 에너지 및 운송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도 확대 - 브렉시트를 계기로 FTA 체결 등을 통해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이 영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양국 간 긴밀한 군사적 협력 등을 고려할 때, 영국과 중국 관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측

일본	- 영국 진출 자동차 및 중공업 분야의 일본 대기업들은 한국, 중국에 비해 진출 역사가 길어 현지에서 모두 공장을 운영하여 자체 생산해 상대적으로 환리스크에 강함 - 자동차 산업은 2019년에 브렉시트 대비 및 수익성 악화에 따라 혼다와 도요타, 닛산 등 주요 완성차 기업이 영국 내 생산계획을 취소하거나 철수를 발표하는 등 구조조정 중임 - 일본은 2019년 2월 1일부로 EU와 EPA를 발효, 일본은 94%, EU는 99%의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해 자국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하게 됨
미국	- 미국은 영국의 최대 수출국이며, 두 번째의 수입대상국으로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 2018~2019년 대영(對英) 투자진출 1위 국가는 미국으로, 총 440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2위 독일의 109건에 비해 약 4배 높은 수치를 기록

한·영, 130년 넘는 장구한 역사적 관계 형성

- 1883년 11월 한·영 통상조약 체결
 - 2013년 11월 한·영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양국 간의 금융협력, 문화 창조 산업협력, ICT 산업협력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영국 한국전 참전기념비 (Korean War Memorial, London) 기공식을 런던에서 개최
 - 2017~2018년에는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지정, 양국 정부 간 협의를 바탕으로 문화교류를 통한 친선을 도모하고, 중장기적 문화협력의 기반을 구축(양국에서 2년간 83개의 프로젝트와 275개의 문화행사 개최)
 - 영국은 2019년 8월 기준 한국의 17대 수출 대상국이자, 25대 수입 대상국임
 - 한국의 대영(對英) 수출은 2019년 8월 기준 4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였고, 수입 규모는 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함
- * 제트유 및 등유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해 수출 3위를 차지했고, 아연도강판의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41%가 증가함

나. 한-영국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미래 산업 선도하기 위한 산업전략과 ‘분야별 합의(Sector Deals)’ 발표 및 추진

- 영국 정부는 2017년 11월 산업 및 기술,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가 생산력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담은 산업전략을 발표함
 - 국가 생산성을 지탱하는 다섯 가지 토대로 혁신경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프라 업그레이드, 친기업 환경 조성 및 지역 간 균형된 발전을 언급
-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도전과제로는 다음 4가지 분야를 설정

핵심 분야	세부 내용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 경제	글로벌 경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해당 기술의 사용을 장려

청정 성장	영국이 탄소 배출량 감소 등 청정 성장 분야에 있어 이미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모색
미래형 이동수단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 사용을 장려하고, 커넥티드·자율주행차량의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형 운송수단 산업을 선도
고령 사회	고령 인구를 위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해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웨어러블 기기 등 혁신 헬스케어 기술의 활용을 장려

- 이어 영국 정부는 2018년 2월 항공우주, 인공지능(AI), 자동차, 건설, 창조 산업, 생명과학, 원자력, 해상풍력, 철도, 관광 등 10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과 합의를 거친 ‘분야별 합의 (Sector Deals)’를 발표하고, 이들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함

한국은 8대 핵심 선도사업의 선정 및 추진

- 2017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8대 핵심 선도사업
 -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신산업 기반 정비와 일자리 창출 유도를 목표

우리나라 8대 핵심 선도사업	
1	초연결 지능화 - 5G 상용화 -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확립
2	스마트 공장 -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 업종, 규모별 시범공장 구축(~2022년)
3	스마트 팜 -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4	핀테크 - 규제 샌드박스 확립
5	에너지 신사업 - 공공기관 부지 등 활용,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6	스마트 시티 - 기술개발, 실증 지원 -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 조성(~2022년)
7	드론 - 구매수요 발굴 - 실증 인프라구축(비행시험장 확충)
8	자율 주행차 개발 - 실증 인프라 확충

한-영국 간 경험개발이 가능한 미래 산업 분야

- 영국의 미래 산업전략 및 분야별 합의(Sector Deals)와 우리나라의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기반하여 양국의 주요 공통 관심 산업 적극 발굴 필요

협력 가능 사업		구체적인 수요(협력 방향)
인공지능(AI)	원자력	■ ICT 강국 - 핀테크, AI 분야 등 스타트업 협업 ■ 자동차 및 배터리 생산 강국 - 자동차 제조, 부품, 친환경 자동차 분야 경쟁력 보유 ■ 생명과학 분야의 협업 - 제약,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 협업 ■ K-콘텐츠 등 문화 창조 산업의 발달 - 소비재 수출확대 가능성
청정 성장	생명과학	
미래형 이동수단	창조 산업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미래로 가는 한국-영국 협력정책

2013년 11월 한-영 정상회담 개최 및 성과 구체화 노력

- 양국은 금융협력, 문화 창조 산업협력, ICT 협력, 경제통상공동위원회 설립, 해양 플랜트 인재 양성, 포괄적 원전 협력, 원자력 해체기술 공동연구, 기후변화 공동성명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한 경제협력을 확대, 강화하기로 합의
 - 양국 경제 통상 분야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 : Joint Economic and Trade Committee) 설립에 합의하고, 제1차 위원회(2013년 11월 6일, 런던) 및 2차 위원회(2015년 3월 17일, 서울) 개최
- 제2차 경제통상공동위에서 양국은 경제통상협력 확대·강화를 목표로 무역·투자, 국제경제, 에너지, 보건, 문화/정보기술(IT) 등 5개 분야에서 성과 구체화 방안 논의
 - KOTRA와 영국의 무역투자청(UKTI)은 한-영 기업인들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포럼과 중소 정보기술(I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K-TECH@LONDON을 2015년 6월 도하와 런던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합의
 - 또한 2013년 영국 국빈 방문 시 합의한 해양플랜트 인력양성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관 대학으로 부산대와 인하대 2개 대학을 선정, 공동학위 과정을 시행 합의
 - 그 외 한국과 영국의 거시경제정책 공조, 전기차와 그린빌딩 등 에너지 분야 협력, 임상시험 관련 공동협력 등 보건 분야 협력, 창조산업포럼과 음악·디자인·패션·출판 분야 교류확대 등 문화/정보기술(IT) 분야 협력 논의
- 두 나라 경제계 간 회의체인 '한-영 글로벌 CEO 포럼도 전경련 및 영국 CBI(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ies) 주최로 같은 날 개최
 - 포럼에서는 한-중 FTA 타결에 따라 중국 시장 진출의 관문으로서 한국에 대한 영국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

2017년 9월 한-영 정상회담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강화 방안 및 북핵 문제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양국의 현안에 대해 협의
 - 경제 분야 관련, 특히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브렉시트와 무관하게 한영 FTA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앞서 양국은 2016년 12월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제3차 경제통상공동위에서 브렉시트 이후 양국 간 단절 없는 통상관계 정립을 위해 한영 무역작업반 설치에 합의하고, 금융, 과학기술, 방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체결

- 2019년 10월 31일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영국은 한-EU 자유무역협정 당사국 지위를 상실, 영국과 한국 간 교역에는 이 협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됨.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비, EU와의 협상은 물론 역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한국과는 2016년 12월 영국에서 개최한 제3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에서 한-영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 설치 합의를 시작으로 이후 3차에 걸친 무역작업반 회의를 통해 한-영 무역 투자 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한-영 FTA 추진에 합의하고, 2019년 6월 10일 한-영 FTA 협상에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함
- 한-영 양국은 2019년 8월 22일 FTA를 체결함으로써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EU FTA에서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됨
 - (상품관세)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 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4.5%)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 가능

* 현재 대(對)영국 수출 시 전체 상품 중 99.6%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 한-영 FTA 未체결 시 평균 4.73% 수출 관세 부과
 - (원산지)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 시간을 감안하여,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
- 양국은 노딜 브렉시트로 금번 FTA가 발효되면, 2년 내에 개선협상을 개시기로 하고, 또한 딜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의 EU 탈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한-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함

나. [B2B] 양국 기업 간 산업협력

① 핀테크(FinTech) 분야 협력

정책 현황

- 2013년 11월 VIP 訪英 시 한영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협의체 구축 합의
 - 한국 금융위원회와 영국 재무부 금융당국 공동 주관으로 한영금융 협력포럼을 정례화해 개최 하며, 2016년 제3차 협력포럼에서 한국 금융위원회와 영국 FCA가 핀테크 분야 규제현황, 산업 생태계 동향의 정보교류를 위한 내용의 '핀테크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

- 2019년 5월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이 영국 핀테크 주간(UK Fintech Week, 4.29~5.3)에 맞춰 런던에서 자산운용업·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함. 영국 핀테크 주간은 2014년 처음 시작해 매년 250개가 넘는 핀테크 기업과 4,000명 이상의 투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영국 최대 핀테크 행사 중 하나임
- 한국의 핀테크 산업 육성 노력, 서울 금융 중심지 현황, 외국계 핀테크 회사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고, 한국이 도입한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 등 교류 확대 필요성 공감
- 한국 금융위원회와 영국 금융감독청(FCA) 간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FinTech Bridge)도 체결

산업 현황

- ICT 금융 강국을 위한 핀테크(Fin Tech) 및 인공지능(AI) 기술 육성
- 영국은 세계 ICT 시장규모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ICT 발전지수(IDI : ICT Development Index)를 보면, 2017년 기준 아이슬란드(8.89), 한국(8.85), 스위스(8.74), 덴마크(8.71)에 이어 5위(8.65) 수준으로 상위권에 위치함
-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과 앤드루 왕자가 설립한 비영리재단인 피치앳팔리스(Pitch@Palace) 등이 핀테크 및 블록체인 등 스타트업 발굴에 앞장서는 등 4차 산업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우수

진출 현황 및 경험 방안

- 2019년 5월 개최된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워크'에서 금감원-딜로이트 간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금감원은 금융규제 및 감독 당국 간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Referral Mechanism)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
- 딜로이트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홍보·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
- 금융감독원은 2019년 6월 해외 감독기구(FSB), 글로벌 컨설팅업체(KPMG, McKinsey), 글로벌 리서치업체(CB-Insight) 보고서 등을 토대로 '글로벌 10대 핀테크 트렌드'를 선정, 발표했는데, 이들 트렌드를 고려해 영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
- 한국의 높은 ICT 인프라 수준은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 성장에 유리한 여건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기술을 금융과 결합하면, 핀테크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됨
- 현지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등과 협업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영국 시장 진출 지원

- 영국이 짧은 기간 동안 핀테크 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강자가 된 비결 및 경험을 우리기업들이 전수 받아 영국의 거대한 핀테크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영국 정부의 우호적인 규제환경 조성은 핀테크 에코시스템(인력, 자본, 정책, 수요)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므로, 영국의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육성전략(혁신과 경쟁을 강조하는 규제환경 조성)을 참고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국내 투자자들이 핀테크 산업 성장에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확대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함

2 전기 자동차

정책 현황

- 청정성장(Clean Growth)은 영국이 2017년 11월 발표한 산업백서에 담긴 4대 미래 도전과제의 하나로, 관련 분야의 성장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됨
 - 2018년 7월 발표한 배기가스 감축 전략보고서(Road to Zero Strategy)에서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70%를 초저공해(Ultra Low Emission) 차량으로 교체하고, 2040년 이후에는 휘발유 및 디젤 차량의 판매 중단 계획을 밝힘
- 미래형 친환경 차 보급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및 지원 확대
 - 충전소 건설을 위한 100만 파운드 신규 지원 및 2020년까지 중앙정부 차량의 25%를 초저공해 차량으로 교체 등

산업 현황

- 2019년 6월 기준, 영국 내 저공해 자동차는 전체 자동차 숫자의 1% 이내로 아직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 2018년 기준 전체 등록된 자동차 중 휘발유 차량은 59%, 디젤 차량은 39%이며, 저공해 자동차 신규 등록은 2019년 1~7월 기준 97,038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수치임
- 딜로이트에 따르면, 소비자 인식 변화, 기술개발, 정부 보조금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한 발전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은 2020년을 기점으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
 - * 티핑 포인트 : 작은 변화들이 기간을 두고 쌓이다가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

진출 현황 및 경험 방안

- 영국은 정부와 산업 간 협력을 통해 산업발전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제조업 분야별 합의(Sector Deals) 프로그램을 2018년에 수립, 운영하고 있는데,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연구개발에 강점이 많고,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있어 배터리 설계 및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 가능성이 있음

- 저탄소 기반의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정부 기관과 협력을 통한 미래형 이동수단 개발에 참여
 - APC(Advanced Propulsion Centre)는 초저공해 차량과 제로 배출 차량으로의 전환을 관리하기 위한 허브로,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10년간 1억 파운드를 투자해 영국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전기자동차 주요 협력 가능 분야

구 분	내 용
APC (Advanced Propulsion Centre)	- 새로운 저탄소 자동차 기술연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10년간 500만 파운드를 지원
자동차 연구개발 기금	- 미래형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출연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225만 파운드를 지원
저공해 및 배기가스 제로 배출 차량으로 전환	- 전기차 배터리 설계, 개발 및 제조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 국가가 되기 위한 패러데이 배터리 챌린지 (Faraday Battery Challenge) 기금 246만 파운드 * 패러데이 기관 출연 78만 파운드(100% 공적자금), 패러데이 국립 배터리 제조 시설 80만 파운드 및 패러데이 배터리 챌린지 영국 프로그램 혁신에 88만 파운드 책정
자동차 산업의 미래	- 영국을 연결 및 자율주행차의 개발 및 배치에서 글로벌 리더로 포지셔닝하기 위해 250만 파운드 투자 * 협력 R&D 프로젝트 150만 파운드, 자율주행 테스트 인프라 100만 파운드 지원

③ 제약·바이오

정책 현황

- 생명과학은 영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기둥 중의 하나로, 전국에 24만 명의 고용과 700억 파운드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
 - 정부는 민간부문과 협력해 선구적인 치료법 개발 및 의료기술 혁신을 통해 생명과학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로 생명과학 관련 제조업 지원, 디지털 혁신허브 구축 지원, 공공의료제도 NHS와 협력 지원, 생명과학 클러스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산업 현황

- 제약·바이오산업은 2017년 기준 전 세계 시장규모가 1조 1,350억 달러에 달하는 초거대 사업이며, 고령화와 신흥국의 경제성장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시장규모는 2022년에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최근 복제약의 확산으로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이 갈수록 어려워져 R&D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어 자체 역량만으로 R&D를 수행하던 폐쇄형 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공유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이 부각되고 있음

진출 현황 및 경험 방안

- 제약·바이오 분야는 최근 한국과 영국 간에 개방형 혁신을 통한 협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분야 및 방식도 매우 다양해지는 추세임
- 이는 한영 제약 산업이 단순한 수출입 관계를 넘어 신약 파이프라인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파트너 관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2018~2019년에 영국의 스타트업과의 협업사례가 창출되고 있음

제약·바이오 분야의 한·영 개방형 혁신 사례

업체명	시 기	내 용
K사	2018. 3월	· 바이오벤처로 분사된 옥스퍼드백메딕스의 지분 인수 – 암 치료제와 모니터링을 위한 치료·진단 제제 개발
A병원	2018. 9월	· 벤처기업인 Transformative AI Limited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데이터 및 생체신호 데이터 분석 공동연구 MOU 체결 – 대표적인 생체신호 데이터인 심전도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 부정맥을 조기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
J제약	2018. 10월	· 영국의 아르고너트(Argonaut Therapeutics)와 투자 계약 체결 – 옥스퍼드대학 스타트업, 종양 세포 증식과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 개발 중으로, J제약이 25% 지분 취득
J사	2018. 10월	· 옥스퍼드대에서 분사한 바이오 벤처 백시텍에 J사 지분 투자 – 이 기업은 면역세포인 T세포의 반응을 활성화하는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면역 항암제와 범용 독감백신을 개발
L화학	2018. 12월	· 영국의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기업 아박타와 손잡고, 항암·면역질환 타깃 물질을 공동 개발
S제약	2019. 3월	· 혈소판제 신약후보물질 SP-8008이 영국의약품보건외로제품규정청(MHRA,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의 임상 1상 승인(CTA)을 받음
K제약	2019. 6월	· 옥스퍼드대 종양학 교수들이 설립한 바이오기업 ‘옥스퍼드 캔서바이오마커스(Oxford Cancer Biomarkers)’에 투자 – 옥스퍼드대에서 분사한 암 진단 바이오 마커 및 암 동반 진단 플랫폼 개발 기업임
P약품	2019. 7월	· 던디 대학의 신약개발유닛(DDU, Drug Discovery Unit)과 파킨슨병 신약치료제 개발 위해 수백만 파운드 규모의 파트너십 계약 체결

- 영국 남동 지역의 골든 트라이앵글 생태계(런던, 케임브리지, 옥스퍼드)내 우수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협력 및 M&A 등 협업사례 발굴
- 항암제, 중추신경계, 바이오신약, 인공지능 분야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등이 협력 가능한 주요 분야임
- 협력 방식으로는 개발 기술이나 특허권 등의 사용권을 빌려주는 라이선싱 아웃(Licensing Out), 특정 지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라이선싱 인(Licensing In), 신약 후보권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M&A 등이 있음

-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기업창업지원기관인 메디시티(Medicity)는 런던을 기점으로 영국 생명과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시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 확대 필요
- 산업이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영국 협회나 스타트업 양성기관과의 협업이 필수

4 K 뷰티

정책 현황

- o 영국 내 K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뷰티박스,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마케팅 톨을 활용한 우리기업의 영국 시장 진출사례가 늘어난 반면, 혁신 제품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
- o 영국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비율이 늘고 있어 아마존, e-Bay 등 대표 온라인 플랫폼 입점이 중요

산업 현황

- o 영국의 대(對)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2018년 약 4,056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49% 성장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성장률 172%를 기록함
 - 이중 스킨케어, 아이 메이크업 제품이 전체 수입 중 약 90% 이상을 차지
- o 한편 한류 화장품 시장은 최근 급성장함에 따라 시장이 성숙 단계에 이르고, 영세 유통업체들의 난립과 저가용 제품들의 수입 확대로 현지에서 브랜드 가치 형성과 가격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시장의 성장세는 유지되나, 2, 3년 전에 비교해 신규 시장 진출이 어려운 만큼 차별화된 마케팅과 혁신제품을 앞세운 브랜드화 전략이 필요

진출 현황 및 경험 방안

- o 뷰티박스, 팝업스토어, 소셜미디어 홍보 등 영국 진출 초기에 입체적인 제품홍보를 통해 시장조사 및 인지도 형성, 이후 K-뷰티 사절단 참가를 통해 현지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추진
 - 요가 등 명상업계를 대상으로 에센셜 오일 및 향수 등 힐링 제품 같은 맞춤형 고급 제품 시장을 공략해 생활밀착형 마케팅을 전개하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음
- o (유망품목) 스킨케어, 아이메이크업, 면도·탈취·샤워용 제품, 매니큐어 등
 - 스킨케어와 같은 기초화장품 시장을 중심으로 K-뷰티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마스크 팩을 포함한 스킨케어 품목은 색조 화장품에 비해 인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워 진출에 용이함
 - Cruelty-Free(동물성 원료 미포함, 동물실험 미실 시), Vegan, Recycle friendly 품목이 유럽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5 혁신기술 보유한 스타트업의 진출 확대

정책 현황

- 영국은 발달한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창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혁신의 결과물이 영국 내 상업화되도록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 시행, 법인세 인하 및 창업가 비자 제도 개편 추진 등을 통해 親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 중
 - 런던시 공식홍보기관인 런던 앤 파트너스(London&Partners)에 따르면, 2018년 영국 기술(tech) 분야에 대한 VC 투자는 18억 파운드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영국 전체 투자유치액의 약 72%를 차지함

산업 현황

- 영국은 금융 산업이 발달하여 스타트업 자금 조달에 유리한 국가이며, 정부는 국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8~2019년 우리 스타트업이 영국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스타트업의 영국 진출 가능성 확대

진출 현황 및 경험 방안

- 영국의 주요 엑셀러레이터(Seedcamp, Techstars London) 프로그램 지원 및 스타트업과 협업 프로그램을 보유한 현지 재단 및 대기업과의 협업기회 발굴
 - 앤드루 왕자가 설립한 비영리재단인 피치앳팰리스는 지난 5년간 62개국 120여 차례 스타트업 피칭대회를 개최, 약 800개 기업을 후원해 11억 1,300만 파운드의 경제가치 창출
 - * 2019년 5월 '피치앳팰리스 코리아 1.0' 개최로 한국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기회 제공
 -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은 영국 국제통상부(DIT) 등과의 민관 협업을 통해 국내의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 영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 2019년 9월 현재 5개사 RBS/Natwest 프로그램 선정
 - 재규어랜드로버 등 현지 대기업들과의 협업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Techday London, Startup Grind Europe 등 영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스타트업 행사에 참가해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제품·서비스 홍보 필요
- 현지 VC 주요 투자 분야로 사이버 보안, 핀테크,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게임 등이 있으며, 해당 산업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리 스타트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

다. [B2G] 프로젝트&공공조달 협력

교통·통신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 (노후 철도 개선 프로젝트) 2015년에 철도도로청(Office of Rail and Road)은 영국 철도차량의 평균 나이를 21세라고 진단하고, 구형 차량의 열악한 환경 및 낮은 성능으로 고객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교체 필요성을 강조함. 영국 철도회원사협회인 철도운송그룹(Rail Delivery Group)은 2017년 ‘객차 장기 전략 계획’을 발표, 2024년까지 교체 및 도입될 신규 철도차량 수를 4,195대(이후 6,100대로 목표치 수정)로 밝히면서 이를 통해 철도차량 평균 나이를 15세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 중
- 통신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 정부는 2018년 11월, 5G 실현을 위해 2027년까지 68억 파운드를, 전역 광통신 브로드밴드 설치를 위해 2033년까지 6천억 파운드의 국가 인프라 투자보고서(National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ipeline 2018)를 발표. 정부는 7억 7천만 파운드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민간 투자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에서 공급받기로 하고, 통신 인프라 개선을 추진 중

국민건강서비스(NHS) 공공조달

- NHS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단일 의료제도로 영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영 보건복지 체제를 지칭하며, 영국 의료 시장 총매출액의 약 85%를 차지해 시장을 거의 독점함과 동시에 시장의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하고 있음
 - NHS 예산은 2018~2019년 회계연도 보건부 예산 1,290억 파운드 중 89.1%(1,150억 파운드)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9~2020년 예산은 1,340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최근 예산 증가율이 지출 규모 확대보다 낮아 적자 폭이 지속되는 추세임
 - 2014~2015년 NHS에서 발생한 적자는 8억 2,200만 파운드였으나, 2015~2016년에는 그 규모가 3배로 증가, 무려 24억 5,000만 파운드라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함. 2017~2018년도에는 9억 6,000만 파운드 적자를 기록함
 - NHS는 예산 절약을 위해 2006년 의료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조직인 NHS Supply Chain을 구성, NHS 산하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제품을 통합 구매함으로써 제품 구매 단가를 최대한 낮추고자 노력해오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NHS가 헬스케어 분야의 AI 스타트업들과 협업하여 AT 문진서비스 및 원격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상실험 및 학술자료 등 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AI 분석을 통해 신약 및 새로운 처방 프로그램의 설계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텔레케어(ICT를 활용한 원격 케어), 텔레헬스(장거리 임상데이터 교환), 모바일헬스(App과 IoT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시스템(전자차트, 전자 처방 등) 관련 품목에 대한 NHS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진출 노력 필요
- NHS는 에이전트를 배제하고, 제조사로부터 직접 납품을 받는 조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조달의 특성상 입찰 공고가 게재된 이후 해당 정보를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 낙찰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 최근 NHS의 조달 고려사항 및 기존 입찰 검토를 통해 향후 조달일정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

라. [국민] 동반자 관계 형성과 발전

양국 인력교류 현황

- 최근 한국-영국 간 인력교류는 현상 유지 또는 감소 추세이며,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영국 방문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고려됨
- 2015년 이후 한-영국 관광객 수 현황

한국 방문 영국 관광객 수			영국 방문 한국 관광객 수		
연도	방문객수	전년도 대비 증가율	연도	방문객수	전년도 대비 증가율
2015년	123,274	-6.00%	2015년	224,126	11.8%
2016년	135,139	9.60%	2016년	198,059	-11.63%
2017년	126,024	-6.70%	2017년	194,674	-1.71%
2018년	130,977	3.93%	2018년	161,201	-17.19%

자료 : 한국관광공사(좌), VisitBritain(우, 영국 관광정보 제공 사이트)(2019년 10월)

- 한국 방문 영국 관광객 수는 약 12~13.5만 명으로 “유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약 13만 명의 영국 방문객 유치
- 영국 방문 한국 관광객 수는 최근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8년 기준 약 16만 1,000여 명이 방문

양국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 ‘2017~2018년 한영 상호 교류의 해’는 2016년 양국 정부 간 협의를 바탕으로 문화교류를 통해 친선을 도모하고, 중장기 문화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2년간 양국에서 83개의 프로젝트와 275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성과를 남김
- 양국 교류의 해를 계기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잉글랜드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는 공동기금을 마련, 테이트모던(Tate Modern)을 비롯한 영국 유수의 전시기관에서 다양한 한국 작가를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해 영국 미술계의 큰 주목을 받음
- ‘2017~2018년 한영 교류의 해’ 사업은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해 영국 주요 문화예술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협력 기반 조성에 기여한 만큼 이를 계기로 2020년 이후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함

- 이를 위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잉글랜드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간의 공동 기금을 통해 만들어진 시각예술 및 공연 분야, 거리예술 분야의 한영예술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예술작품 창작 및 이에 대한 한, 영, 제3국 시장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당시 댄스엠브렐라, 서펜타인갤러리 등 현지 주요 문화예술기관들과 체결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한영 예술가 및 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력 사업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런 협력을 계기로 양국 국민들 간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 및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

Ⅲ. 향후 對영국 K패키지 실행체계(안)

브렉시트 시, 한영 FTA 발효를 통한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 한국과 영국은 9월 30일 브렉시트를 앞두고, 차관급 고위경제대화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 한국과 영국의 차관급 고위경제대화는 영국의 EU 탈퇴 전망과 준비현황 등을 논의하며, 양국 간 경제협력, 기업 진출, 다자협력,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의제를 폭넓게 다룰 계획
 - －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기후변화와 환경, 에너지, 금융,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협력 협의
- 브렉시트 시 한·영 FTA 발효를 통한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 －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의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및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 분야(산업혁신기술, 에너지, 자동차, 중소기업, 농업) 협력 강화
- 한-영 경협위원회를 구성해 5대 분야별로 영국 정부 및 유관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규 과제 발굴 및 실행력 제고

5대 전략 분야	한국 기관	영국 기관
산업혁신기술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통상부·상공회의소
에너지	국토부·한전·신재생에너지협회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신재생협회
자동차	산업부·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영국자동차산업협회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농업	농림축산식품부·aT센터	주택·지역사회 지방행정부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최익근	차장	런던무역관	44-20-7520-5304	ikchoi@kotra.or.kr
2	박미나	현지	런던무역관	44-20-7520-5314	mp1@kotra.or.kr

KOTRA자료 20-036

2020 국별 진출전략 영국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182-1(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